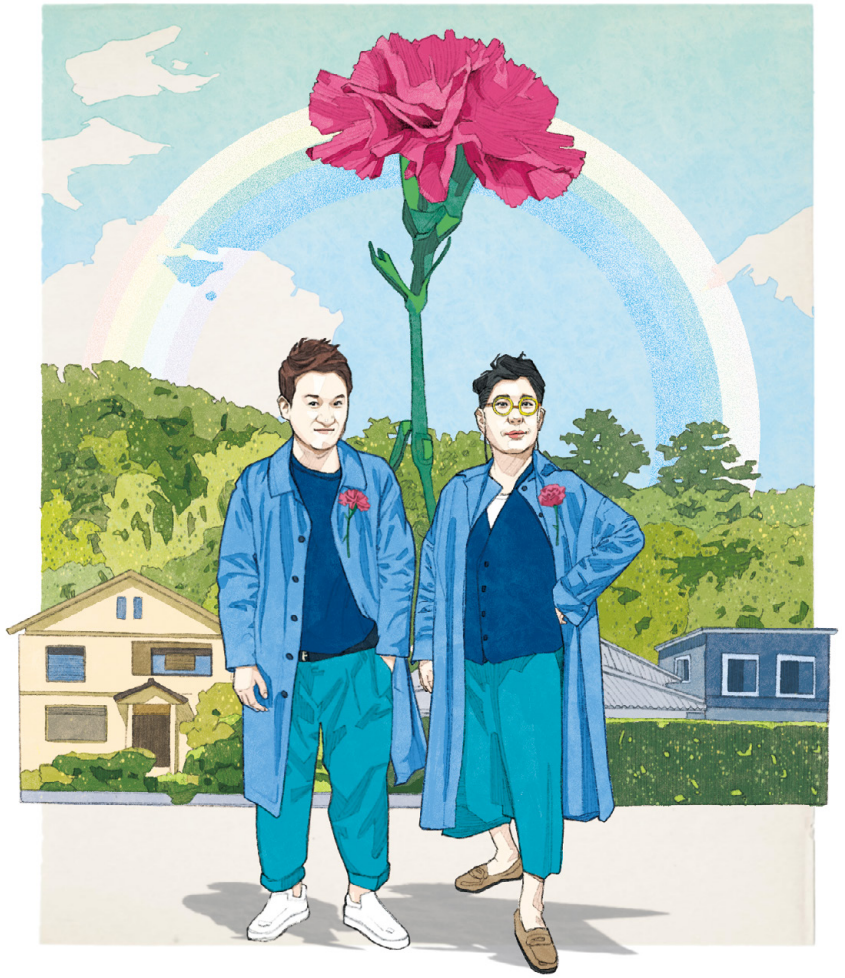


IBK기업은행은 200만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5 | 2022 May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공덕동지점 거래고객
㈜아이젠파마코리아 고정용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 거래고객
한국학술정보㈜ 채종준 대표

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자산관리의 시작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노후를 위한 연금 조회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 관리·커리어 관리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contents 2022년 5월호







04 **2022 여성시대 특집**
힘내라 청년! 청백전!

17 **이달의 편지**
'무소비의 삶'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아이젠파마코리아 고정용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한국학술정보㈜ 채종준 대표

80 **코너 속 편지**
'세상에 소금이 되겠습니다'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일상의 풍경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대사 하나하나가 〈여성시대〉를 닮은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5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동현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2 여성시대 특집

힘내라 청년! 청백전!

여성시대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집으로
'힘내라 청년! 청백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사연을 받아
총 60분께 백만 원씩 청년 희망 장려금을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여성시대 '힘내라 청년! 청백전!'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함께했습니다.



어머니의 대들보가 되겠습니다

현욱 | 충북 옥천군

오늘도 저는 앞치마를 챙겨 들고 어머니의 칼국수 집으로 향합니다. 식당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이미 칼국수 면을 가지런히 밀어놓은 채 가스레인지 위에는 멸치육수를 올려놓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위해 출근하신 후입니다. 제가 식당을 맡아서 해보겠노라고 결심한 후부터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나가십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만류를 물리치고 결심한 오늘의 선택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과연,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뿐임을 알기에 묵묵히 어머니가 전수해주신 비법대로 겉절이를 버무리고, 채소를 손질하고, 칼국수와 함께 나가는 맛보기 보쌈을 삶아 놓고, 양

념장과 새우젓을 점검하고, 식탁 정리까지 합니다. 점심 장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면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여유를 누립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때맞춰 한 타임 근무를 마친 어머니께서 퇴근하시자마자 합류합니다. 매의 눈으로 주방과 홀 그리고 화장실을 스캔하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가차 없이 일침을 날립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나 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성에 안 차시는지 연신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겉절이는 손님 오실 시간에 맞춰서 버무려야 아삭거리는 건데 뭐가 바쁘다고 미리 버무려 놓았느냐, 보쌈 고기를 저렇게 두껍게 썰면 어떡하느냐, 호박이 너무 가늘다, 대파는 더 가늘게 썰어라 등등 점심 손님이 오기 전까지 끝없이 지적하십니다.

어머니 눈에 절대 마음에 드실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청해야만 하는 저는 서른여섯 어머니의 자랑, 우리 집 대들보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꿈꾸지 못했던 낙향. 더군다나 어머니의 칼국수 집을 가업으로 물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한때는 지갑에서 얼마를 빼 써도 다음날이면 가득 채워져 있을 만큼 잘나갔기에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열흘 붉은 꽃은 없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 하루아침에 무너질 모래성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있어 고향에 알리지도 못하고 용역으로 노숙으로 겨우 버티고 살던 저를 찾아온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고!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러고 있어!"

그 한마디에 빈손으로 내려온 고향이었습니다. 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시는 어머니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상심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푹 쉬라며 기다려 주셨고, 얼마 후 어머니의 소개로 한 농공 단지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삼겹살 파티를 열며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격려해주시던 어머니. 다음날 적금 통장을 만들어 아들 손에 쥐여 주시던 어머니.

그러나 그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휘몰아치더군요. 어렵사리 들어간 회사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절망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갈팡질팡 흔들리는 저에게 "욱아! 네가 우리 칼국수 집을 맡아라. 엄마가 점심시간 딱 두 시간만 도와주고, 요양보호사로 몇 타임 뛰면 되니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15년간 일궈놓은 칼국수 집을 이어받아 가업으로 일으켜보라고 하시며 다음 날부터 당장 앞치마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산 넘어 산이지만 온전히 혼자서 가게를 맡게 되는 그날까지 어머니께서 모든 비법을 전수해주고 계십니다. 든든한 어머니의 지원에 결코 누가 될 수 없기에 어깨가 무겁지만 아들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맛있는 칼국수 집으로 성장시켜 어머니와 저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주시고 참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지켜봐주세요. 당신의 대들보 꼭 성공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박동준 | 경기도 파주시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12년 3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서 유격훈련 중 크게 다쳐 의병제대를 하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강도 높은 재활 치료를 하였습니다. 살이 찢어질 듯, 뼈가 조각나는 듯한 통증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지만 젊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재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쳤고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치료될 거라는 초기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저는 절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 오랫동안 버텨온 한 가닥의 의지도 바닥나 버렸습니다. 저는 무절제한 폭식을 하고 미친 듯 게임에 빠져드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게임이라도 하면서 고통을 이겨보려 했고, 마구 먹는 순간만큼은 통증을 덜 느끼고픈 삶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느덧 제 몸무게가 130킬로를 넘고, 당뇨와 혈압도 치료가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 우울증, 공황장애, 전환장애, 불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병명은 CRPS. '바람만 닿아도 통증을 느낀다'는 무서운 통증병인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21살 꽃다운 청년이었던 저는 이제 32살이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휠체어를 밀고 가거나 보행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거나 이동할 때면 근처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다리를 만지거나 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제 다리를 누군가 만지거나 닿는다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통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입원하고 치료받고, 그러다 다시 퇴원하여 혼자서 침대에 누워있거나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는 정도가 제 일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정신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아 아주 조금씩 세상과 다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았고, 부모님과 지인들은 제가 건강할 때 예의 바르고 건실한 청년이었던 것을 상기하게 해주셨습니다.

"힘내라" 하고 주문하기보다는 "힘들지, 애썼다"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만일 힘내라고 하신다면 내가 힘내고 싶어도 힘낼 수가 없는 현실이라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눈물이 났을 텐데 애썼다고 해주시니 이해받고 있다는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저는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 두려움 속에 방황하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 덕분에 저는 아주 천천히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또 일찍이 경험하지 않았던 코로나 상황은 제 이런 두려운 마음을 더 부추겼습니다. 몸 여기저기 치료를 받고 있는 저는 혹시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모처럼 낸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다시 침상으로 들어가 숨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 없다는 말을 담당 교수님께 드렸더니 제 이런 두려움을 눈치챈 '김O휘' 교수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것도 경험한 네가 코로나로 학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 다들 방역을 지켜가면서 세상 속에 나오고 일상은 멈추지 않고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위해 끝까지 뭐든지 다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옆에서 손잡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냥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고 지난 2020년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위해 오랜 칩거를 마치고 그동안 다니던 대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의 네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고 너는 가장 잘 이끌어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저는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할 정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부모님이 태워다주시고 하교는 택시를 불러야 하는 고된 일정에 당당히 용기를 냈습니다. 수업 중에 통증이 오면 교실 뒤 창가 쪽에 누워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수님들도 배려해주셨고, 부모님은 교실 뒤쪽에 항상 매트를 깔고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환자가 쉬고 있습니다〉라는 인쇄물을 전면에 걸쳐 놓았습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저에게 계단을 올라가서 수업받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인지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받아서 상담실에서 수업 영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는 이렇게 구차하게 하는 것이 싫고 괴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저는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용기를 내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사 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상담을 통하여 좌절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릴 그들을 위해 오늘도 나는 나아갑니다.

제 몸은 지금 척추와 배에 기계가 삽입돼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몸속 기계의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합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는 주 3회 병원 재활치료와 주 2~3회의 개인 운동치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개인치료는 하지 못하고 주 2회 병원 수중치료와 재활치료만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아직 32살 한창 젊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꿈을 꾸지 못했던 시간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제가 학업를 무사히 마치고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코로나로 위기를 겪는 청년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지난 제 일상의 일들이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하며, 좌절만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 고통받는 분들께 저도 "힘내라" 하기보다는 "애썼다, 다시 시작해보자" 제안합니다.



나에게 보내는 위로

애청자

저는 평범한 25살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어떤 이의 SNS에서 '인생은 언제나 걱정보다는 잘 풀리고 기대보다는 덜 풀린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글이 깊이 숨어있던 저의 작은 불안을 잠재워주는 듯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삶 대부분이 그 말처럼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트럭을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셨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사기를 당해 있는 돈을 다 날리기도 하셨습니다. 불안정한 가정환경 탓에 진로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엄마께서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담보로 빚을 내 고등학생이던 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꿈꿔왔지만 뻔한 집안 사정에 부모님께 말 한번 제대로 꺼내 보지 못했던 저에게는 언제 떠올려도 너무 소중하고 값진 꿈만 같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유학 생활이 제 생각만큼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학생 때 영어를 가장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미 유학비만으로도 돈이 부족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아무런 준비나 공부도 하지 못한 채 비행기에 올랐고, 단순히 외국인과의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물리 등의 수업을 영어로 들으려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꽤 심했던 학교 분위기상 처음 한 달 동안은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도 미국 아이들과 인사 한번 하지 못한 채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했고 그룹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무시하는 거다!' 하는 정신 승리로 겨우 마음을 다잡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니 하나둘 저와 인사해주는 친구들이 생겼고 졸업할 즈음에는 지금 저의 베스트 프렌드도 만나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2년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대학 진학까지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집안 형편상 무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너무나 원하던 대학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운 좋게 합격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무리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고 하셨고, 저도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식 이후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셨고, 제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저도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짐을 싸다 말고 방 한가운데에 앉아 룸메이트에게 안겨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후에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취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고졸에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저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영어뿐이라 영어 학원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대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서류에서 탈락했기에 면접을 볼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무직도 지원 자격에 대졸만을 원했기에 서류 지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회사 중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기에 이대로 계속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저는 알바를 하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후 1년 동안 구직 활동만 계속하던 중 인터넷에 올려둔 제 이력서를 보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고 마침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던 회사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영어밖에 없던 저의 상황이 딱 맞아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어 말고 호텔 업무에 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메모지와 펜과 거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며 종일 일어나는 일부터 배운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적었고, 혼도 많이 났지만 이런 저를 밉지 않게 봐주신 선배님과 상사분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후부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그런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무급 휴가와 인원 감축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 덤으로 매일 기본 두 시간 야근까지 정말 제 인생 가장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막막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가 1년, 2년 길어질수록 언젠가는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 하나만으로 버티던 제 마음이 닳고 또 닳아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 이외에 수입이 없기에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저 버텨야만 하는 제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쳇바퀴 위를 계속 뛰는 듯했습니다. 정말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저는 작년 여름에 결국 퇴사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엄마 간호에만 집중하며 지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져 결국 낮에는 알바를 하고 밤에는 엄마를 간호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눈여겨보던 지인분께서 저의 상황을 모두 아시고는 함께 일해 보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침 엄마 건강도 많이 회복된 상태라 저는 감사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작지만 나름 안정적인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걱정보다는 잘 풀리고 기대보다는 덜 풀린다'는 말처럼 끝나지 않을까 두려운 이 시간도 우리의 걱정보다는 금방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했던 순간이 늘 최고의 순간이 되지는 못했던 그리고 걱정했던 순간이 늘 최악의 순간은 아니었던 저의 삶처럼 코로나 상황 역시 제 걱정보다 더 빨리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얘기를 통해 누군가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사랑과 정〉

[5377] 사랑은 불꽃놀이다. 찰나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고 정은 모닥불이다. 처음 불 피우긴 어렵지만 불이 피고나면 오래도록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다.



[2995] 사랑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정은 보기 싫어도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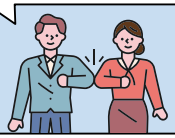


[8363] 사랑은 갓 지은 흰쌀밥인데 정은 누룽지랍니다. 처음 사랑할 때는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더니 이제 20년 넘으니 솥에 눌어 있는 바가지 박박 긁는 누룽지 같은 정으로 산답니다.



[0337] 사랑은 KTX, 정은 무궁화 열차. 빨리 가면 못 보는 것을 느리게 가면 많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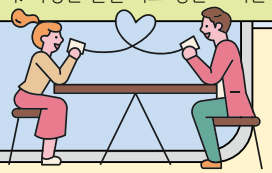
[이민영] 사랑은 실체가 없고 정은 초코파이라 실체가 있어요. 히히^^



[이종희] 사랑은 꿀떡, 정은 쑥떡입니다.

[3897] 사랑은 남친이 친구 만나러 가면 계속 연락하고 궁금하고 신경 쓰이는 것. 정은 남편이 친구 만나러 가면 조용히 집에 무사히 들어오면 감사한 일.

[0716] 사랑은 불이고 정은 물이다. 사랑은 활활 타고 정은 스며든다.



[8701] '사랑'은 뜨겁고 '정'은 뜨시다!

생방송 중 도착한 여성시대 가족들의 문자 모음입니다.

이달의 편지

18 무소비의 삶
21 줌으로 한 생일 파티
24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27 우리는 꼼지락입니다
29 슬픈 기대
33 46세 젊은 할머니가 되다
36 아버지가 주신 숙제
39 우울이
42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46 문안실댁 이야기
50 나의 안전도 못 챙기는 안전관리자
53 27년 소금 인생
56 우리만의 속도
60 가슴 시린 행복의 눈물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무소비의 삶

정유정 | 서울 노원구 노원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으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하루하루 즐거움을 추구하며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왔다.

이제 나이 앞자리가 바뀔 때가 되었다. 29살. 그리 많이 산 나이는 아니지만 적게 산 나이도 아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나는 요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소비'의 삶. 아무것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물건을 정리했는데 안 쓰는 물건이 90%다. '이런 물건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버리기도 죄책감이 드는 커다란 플라스틱들. 분해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 버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뉴스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점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한다. 다 녹아버린 북극 빙하의 사진을 보면 암담하고 절망적이다. 삐쩍 마른 북극곰들은 녹아버린 빙하 앞에 무기력했을 것이다.

소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소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옷을 살 때는 질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으려 한다. 사실 패딩도 2018년에 사고 4년째 입고 다니는데 털이 삐져나와서 새로 사야 하나 고민이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나가야 할 때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옷을 빌려 달라고 사정사정한다. 언니는 고맙게도 옷 좀 사입으라고 잔소리하며 흔쾌히 빌려준다.

출근할 때 커피숍 앞을 지나며 유혹에 빠진다. 단돈 1,500원에 포장해 갈 수 있는 커피. 갈등을 많이 하지만 사지 않는다. 사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머리빗도 안 사서 강아지 빗으로 머리를 빗었다. 강아지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가끔 내 머리카락에 강아지의 사랑스러운 털이 묻는다. 크림색의 뽀글거리는 강아지 털이 묻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한 적이 있는데 생일 선물로 머리빗을 사 주었다. 내가 너무 소비를 안 했나 싶어서 멋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서 사 준 친구에게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소비를 줄였더니 돈이 모였다. 많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저축 금액이 늘었다.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엄마 생각이 났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50대라면 작은 거 하나라도 있기 마련인데 엄마는 목걸이, 귀고리, 반지 중 하나도 없다. 평소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상견례 자리나 사돈댁을 만나야 하는 자리에 나갈 때는 엄마도 조금 신경 쓰이셨나 보다. 어디서 조잡한 목걸이, 반지 모조품 세트를 사 오셨다. 그래서 내가 반지 세트 하나 사드린다고 엄마한테 큰소리를 쳤



다. 엄마는 무슨 반지냐고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다가도 반지 사러 언제 갈 거냐고 물으신다. 필요 없다던 엄마가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셨다. 종로 귀금속 가게에 가서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사드렸다. 엄마는 물 쓰는 일을 하고 나이도 들어서 벌써 손이 쭈글쭈글하다. 진작 사드릴 걸 후회했다. 반지 세트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다. 엄마는 정말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셨다.

나는 요즘 무소비의 삶에 푹 빠졌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다. 삶에 있어서 절제와 부족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늘 풍족함을 추구했던 지난 삶에서는 감사함을 느낄 일이 많지 않았다. 부족하고 절제하는 무소비의 삶을 살다 보니 작은 커피 한잔에도 감사하고 기쁘다. 무소비로 아껴서 다음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장어를 실컷 사드려야겠다.

Letter 02

줌으로 한 생일 파티

박미숙 | 전남 광양시 봉강면 부현길

가족이 모이는 단체대화방에 작은딸이 초대장을 보내왔다. 내일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엄마 생일 축하 시간을 갖겠단다. 딸 결혼식 날 촛불에 점화하면서 찍은 사진으로 초대장을 멋있게 만들었다. 줌으로 생일 축하라니! 이 기발한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났다. 생일인 나를 포함해서 온 가족에게 5천 원씩 입금하라고 해서 그 용도는 무엇일까 궁금증도 더해졌다.

오늘은 방과 후 수업을 위해 교실을 비워주고 연구실에 있었더니 꽃이 배달되었다. 노란 프리지어 한 다발! 평소에는 두 딸의 이름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위 이름도 함께 있다.

퇴근 후 남편과 음식점으로 갔다. 맛있게 밥 먹을 곳을 찾다 예약했는데 둘이서만 방에 있으니 줌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식사하고 드디어 줌이 시작되었다. 사위도 참석해서 5명이다. 경기도, 부산에

흩어져 있어도 이렇게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다니 코로나 시대 비대면 만남이 활성화된 덕이다.

작은딸의 주관하에 먼저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는 축하 편지 낭독! 큰딸이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든다. 지난주에 발령받아 이제 교사 생활 2주 차라 적응하느라 바쁘고 힘든데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다행이다. 자신이 교사가 되고 보니 엄마가 학교생활하면서 자기들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알겠다는 딸의 편지에 가슴이 찡해졌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큰딸은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기에 아이들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훌륭한 교사가 되리라 믿는다.

작은딸 내외의 편지, 남편의 축하 인사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이 있다고 한다. 드디어 5천 원의 비밀이 밝혀진 것이다. 총 2만5천 원에서 1등은 치킨 쿠폰, 2등은 커피 쿠폰! 즉석에서 사다리 타기가 시작되었다. 치킨은 작은딸 부부에게, 커피는 나에게 돌아왔다. 참으로 유쾌한 생일 파티다.

딸들은 나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큰딸 1학년, 작은딸 유치원 때 결혼기념일에는 1부는 트라이앵글, 탬버린을 연주하면서 축하 노래, 2부는 소파 뒤에서 인형극 공연을 했다. 3부는 쭈글쭈글 손코팅한 축하 편지를 줬는데 어린애들이 신통했다.

또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아이가 3학년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과 달걀프라이를 해놓고는 나를 깨웠다. 안방 문에 풍선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꽃바구니를 두고 둘이서 플루트 연주를 해 주었다. 온갖 정성으로 끓인 그때 미역국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결혼 20주년일 때는 우리 몰래 친정 식구들을 모두 초대하여 집안



곳곳에 사진을 걸고 파워포인트로 만든 영상 편지를 보여주었다. 둘이서 몇 날 며칠 엄마, 아빠를 인터뷰하여 부부로 산 20년 세월을 연극으로 공연하여 손님들을 웃음과 감동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생일마다 학교로 떡을 배달시켜 선생님들과 나누어 먹게 해준 우리 딸들! 올해도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순간순간 기쁨을 주고 잘 커 주어서 고맙고, 부족함이 많은 엄마인데도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 너희들의 큰 사랑과 우리 가족의 끈끈함이 나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란다.

Letter 03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애청자

여성시대 모든 분에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 큰 꿈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퇴직 후에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창가에서 보고 싶은 재미있는 책을 실컷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그 누가 알던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한 고도근시였습니다. 제 눈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 끝에 이제 좌안은 시신경에 구멍이 나서 귀퉁이 눈곱만큼만 보이고 우안은 일상생활이 불편할 만큼 희미해졌습니다.

육십여 년간 살아온 감으로 살기는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 다가오는 절망감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책을 볼 수도 없고 글씨를 쓰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공간이 컴컴하게 보입니다. 집안도 어둡고 마트도 어둡습니다.

재작년 봄에는 출가한 딸과 함께 서울 병원에도 갔지만 이 눈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엔 경증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한 해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집에 있는 책 정리를 했습니다. 370여 권을 폐지로 내보냈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책이 제게는 분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옛날 시골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별로 없었고 집에도 교과서 외엔 책이라곤 없었던 시절을 살았기에 저는 아무리 하찮은 책이라도 차마 버리지를 못하는데 그것들을 사지로 쫓아내는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버리지 못하겠다 싶은 것이 2백여 권 남아 있지만 저는 이제 저 책들을 다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다 본 것이긴 하지만, 보기 싫어서 보지 않는 것과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노트북의 글들을 다 지우고 노트북은 원래 주인이었던 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키우던 수많은 다육식물 화분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갔으니 저보다 더 잘 키울 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제는 오일장에 시디들을 싣고 나갔습니다. 분리해서 버리기엔 너무 깨끗하고 자원 낭비라는 생각에 난전에 자리를 깔고 잡화를 파는 아저씨께 드렸지요. '시디 삽니다'라고 써 붙여 두셨지만 제가 그 돈을 받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냥 잘 쓰시라고 드렸더니 좋아하셔서 저도 좋았습니다.

진심을 털어놓자면 저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지 그런 생각들만 머리에서 맴돕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생에 대한 미련도 아닌 것 같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닌 것 같은데 몸속의 수분이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제게 자식이 없다면 아마도 선택은 더 쉬울 겁니다. 아무리 출가했더라도 자식은 저의 멍에입니다. 키우면서 잘해준 것도 없는 자식에게 차마 험한 꼴을 보일까, 마음에 바윗덩이를 짊어진 기분입니다. 형제들도 자식 내외도 손을 내밀지만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라면 다른 감각이라도 발달했겠지만 저는 그렇지도 않으니 최악의 경우엔 할 수 있는 게 숨 쉬는 것뿐이다 싶으니까요.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눈앞이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뿌옇고 어두운 상황이라 좋은 생각을 그리 쉽게 할 수가 없네요.

그동안 저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주었고 재미있는 책도 많이 보게 해주었고 봄의 새잎, 여름의 신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등등 참 많은 아름다움을 보게 해준 눈에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휴대폰은 발광이 있어서 책보다는 더 잘 보이는 편이지만 그것도 점점 흐려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는 여성시대에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아주 오래전부터 삼십년도 훨씬 더 들어온 여성시대를 잊을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겁니다. 여성시대, 영원하기를 빌어요.

Letter 04

우리는 꼼지락입니다

박영선 | 경남 거제시 중곡로

3월 2일 개학일 이후 벌써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3일부터 한 주간 원격 수업이 진행됐고,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텅 빈 강의실에서 접속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우리 반 학생들은 단 하루밖에 만나지 못했고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콧구멍 안에 면봉을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등교 준비로 바쁜 이 시간을 쪼개어 글을 쓰는 이유는 학부모님들께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잠복기일 수도 있는데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학교에 등교하라고요?"

"동생이 확진이지만 옆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형은 왜 학교에 못 가죠?"

모두가 같은 생각, 동일한 상황일 수 없습니다.

새내기 교사들은 젊음의 패기로, 경력 교사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찌르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는 없으신가요?

저는 올해 '꼼지락'이라는 학급 애칭을 장만했습니다. "바쁜데 꼼지락거리지 마!" 할 때 꼼지락이 절대 아닙니다. '꼼꼼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즐겁게'라는 뜻의 '락'을 합친 말입니다.

꼼. 꼼꼼하게 자신이 할 일을 챙기고

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락. 즐겁게 한 해를 지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반 학생들에게 꼼지락 노트도 나눠주었습니다. 2022년의 추억과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록할 겁니다. 학기 말에는 학급 문집도 만들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시고 지켜봐 주세요.

교사와 학부모는 이인삼각 달리기를 하는 동료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올해도 함께 호흡을 맞춰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2022년 멋지게 달리고 싶습니다.

Letter 05

슬픈 기대

김경순 | 충북 옥천군 청산면

늘 그랬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걸려 오는 전화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기에 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친정을 향해 있었고 걸려 오는 전화벨 소리에 온 신경이 곤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하루 세 시간씩 오시는 요양보호사님을 믿고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못난 딸이었습니다. 쌀과 반찬 몇 가지를 챙겨 택배로 보내드리고 용돈 몇 푼 챙겨드리는 걸로 내 할 도리는 다한 거 아니냐며 동생들에게 큰소리 뻥뻥 치는 못난 맏딸이었습니다. '내가 모실게!'라는 말은 차마 못 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매달리면 나도 엄마도 생활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며 자기변명과 자책을 하는 못난 딸이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상하다 느꼈던 엄마의 행동은 '치매'로 밝혀졌습니다. 그 무서운 병은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정작 당신만 아무것도 모른 채 고집과 아집, 집착과 이해 못할 행동들로 형제들과 지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려했던 일이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요양보호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냉장고에 백만 원 넣어둔 게 없어졌다면서 제가 청소하다가 버린 거 아니냐고요. 당장 밖에 나가서 찾아보자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자다 말고 쓰레기장 뒤지러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찾으셨어요?"

"찾기는요. 남동생분이 그러는데 냉장고에 돈 넣어두는 건 젊을 때 습관이고 지금은 그럴 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만 의심을 안 풀고 '암만혀두 이상혀~ 이상혀~' 하시면서 자꾸만 저를 의심하시네요."

그랬습니다. 치매라는 나쁜 병은 예전 기억은 기가 막히게 소환해 내면서 최근 기억은 지워버렸습니다. 가스 불 끄는 일이나 수돗물 잠그는 걸 잊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예전에 쓰던 재래식 화장실을 찾아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사는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 왔고 우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혀의 감각이 사라진 엄마는 국이 짠지 싱거운지도 몰라서 소금을 국자로 퍼붓고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국이 싱겁다고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아이들과 모처럼 엄마를 뵈러 가는 길에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려~ 우리 큰딸인감~ 엄마가 딸래미 좋아하는 우거지 된장국 허구 퉁퉁장(청국장) 끓여 놨으니께 언능 오니라."

그건 분명 기억이 지워지기 전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현관을 열면서부터 느껴지는 집안 분위기와 온도, 느낌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썰렁한 거실에 초점 없이 누워서 딸이 와도 아들이 와도 울기만 하시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안은 엄마가 아프시기 전 그대로였고 풍겨오는 음식 냄새도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반가움에 달려간 식탁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밥상, 우거지 된장국과 퉁퉁장(청국장), 엄마표 간장게장과 봄동 겉절이, 고등어구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울 엄마 이제 병 다 나으셨나 보다! 언제 이 많은 음식을 다

만드셨대? 다 까먹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시더니?"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얼굴에 크림도 바르고 살짝 립스틱도 칠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제 미장원에 다녀오셨는지 갈색톤으로 염색한 머리에 동글동글 파마도 되어 있었고, 연신 활기찬 걸음걸이로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며 과일이며 곶감이며 떡 등을 내오셨습니다. 족히 5년은 더 젊어 보이셨고, 저는 벅찬 감정이 차오르면서 희망찬 기대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야, 엄마 언제부터 저렇게 컨디션이 돌아온 거야? 지난달에 왔을 때하고 확 달라졌는데? 병이 다 나으신 것 같아. 계속 저러신겨?"

그러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누나는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모르지. 엄마가 매일매일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정말 어쩌다 하루씩은 내가 봐도 정말 기대에 부풀 만큼 저렇게 암시랑도 안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다 금세 또 병세가 돌아오면 똑같아지셔. 이 병의 특징이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누나."

그랬습니다. 이 무지한 딸은 어쩌다 잠시 옛 기억을 찾은 엄마를 보고 잠시나마 슬픈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4남매는 잘 극복해 나갈 겁니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현명하게, 서로 상처받지 않고 이 상황을 건강하게 대처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상의할 겁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엄마의 몹쓸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만 말고 딱 지금처럼 딱 여기까지만 하고 멈춰주기를, 완치되지 못하더라도 '혹시 엄마의 병이 다 나은 건가?' 4남매가 기대할 수 있는 날이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엄마,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Letter 06

46세 젊은 할머니가 되다

윤전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지난 2020년 6월에 아들의 또 다른 도전에 관한 사연을 여성시대에 보내 채택이 되었다. 많은 분께서 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덕분에 지금은 멋진 청년이 되어 있다.

그 사연은 8년의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고3 때 그만두며 일반 학교생활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은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오전은 학교생활, 오후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축구교실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지도자의 꿈을 안고 있는 청년으로 잘 자라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길만 달려 온 아이가 안쓰러워 대학교에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며 20대의 생활을 맘껏 즐기기를 엄마인 나는 바랐다.

아들은 바쁘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달려가

던 중 예쁘고 착한 진경이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생활비와 월세를 아끼자며 함께 지내기로 했다.

여자친구와 알콩달콩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좀 더 여유롭게 행복과 추억을 쌓으며 시간을 보냈으면 했다.

그런데 2022년 1월 어느 날, 나에게 의논해야 할 일이 있어 며칠 뒤 집으로 온다는 아들의 말에 '에이~ 설마? 아니지? 아니겠지?' 하며 며칠을 보냈다.

성격 급하고 눈치 빠른 나에게는 그 며칠이 너무 길고 힘들어 만나기 전 전화 통화로 살짝 물었다.

"혹시? 맞니? 엄마 생각이 맞아?"

"만나서 이야기해요."

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고 수화기 너머 목소리에서 대강은 알 수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엄마, 나 겁나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괜찮을 거야 주문도 외웠고,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왜? 벌써?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며칠을 눈물로 보냈다.

며칠 후 둘이 함께 왔다. 아들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자친구 배 속에 아기는 5~6개월쯤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선 울고 싶지 않았지만 참았던 눈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목소리마저 떨렸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멍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어떻게 부모에게 말을 해야 할지 끙끙거리고 서로 눈치 보며 지냈을 두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

부모니깐 내가 아들 딸을 믿고 응원하며 힘이 되어줘야지 누가 하겠는가? 남들 눈치 보며 여태 살아보니 아무 쓸모 없었다. 난 든든한 아들과 착한 딸이 작은 생명을 지키려고 용기 내어 준 것에 감사하고 고마웠다.

내가 아이들 생각보다 어리석었고 부족해서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시간이 지났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눈물이 난다.

나의 아들 그리고 딸아! 결혼의 순서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잖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면 되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자.

살다 보면 분명 서로가 서툴고 부족해서 싸우고 서운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초심! 초심을 잃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며 재미있게 우리 쑥튼이 키워보자.

우리의 선택은 현명했고 세 가족의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용기 내어 써본다.

지민아, 진경아, 곧 만날 우리 쑥튼이를 위해 힘내자. 사랑해!

- 나의 아들 딸에게 엄마가 -

〈추신〉 지민아! 네가 처음 입었던 배냇저고리, 치아, 탯줄은 이제 나의 손에서 떠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빨리 너에게로 돌아갈 줄이야! 잘 간직하길 바랄게.

Letter 07

아버지가 주신 숙제

김진아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80대를 앞둔 우리 엄마, 세상 물정 어둡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작은 반응이나 시선에도 속으로 끙끙 앓으며 오로지 믿고 기댈 곳은 아빠밖에 없던 당신. 당신 자신도 '우물 안 개구리'라며 그렇게 평생을 산 엄마를 아빠는 늘 '소심란'이라고 타박하셨죠. 엄마 이름 끝 돌림자가 '란'이라 아빠가 그리 별명을 붙였어요.

그렇게 아빠 그늘 밑에서 90대까지 평안하게 쭉 사셨으면 했는데 10년 전 아빠가 암을 진단받고 4개월 만에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동생과 저는 아빠의 빈자리를 사무치게 느끼며 생각지도 못한 엄마와의 불화가 시작되었죠.

우선 엄마는 너무 외로워하셨어요. 복지관의 요가, 몸풀기 체조, 노래 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주변에 있는 성당 자매님들과

도 친분을 쌓으라고 다과 자리도 마련하고, 심지어 공원이나 아파트 정자에 모인 어르신을 보면 다음 날 엄마를 모시고 가서 요구르트 한 봉지씩 돌려가며 자연스럽게 친구 사귀기를 도모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인연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혼자가 되어 있었죠.

그 외로움을 오로지 자식과 손주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니 잦은 전화로 동생과 저는 직장 일에도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제 딸과 조카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에 곤란해했고, 어떤 때는 시험 치는 도중에 전화가 울려 큰 낭패도 보았어요. 시험 망치고 애들 눈치며 선생님 꾸중 듣고 와서는 '할머니는 왜 그러냐'며 울며불며 저한테 항의하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지요.

엄마 전화번호가 뜰 때마다 머리로는 '엄마 마음이 많이 외롭구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반복되는 전화에 저도 모르게 미운 말이 먼저 나가고, 또 엄마는 딸의 반응에 주눅이 들어 상처받은 듯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면 엄마도 그랬겠지만 저 또한 하루가 먹먹하고 아팠어요.

어느 날 동생이 제안했어요. 엄마는 낯가림이 심하니 안면 있는 사람과 먼저 연락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고요. 무슨 일이든 만들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픈 맘에 우리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고모와 이모에게 엄마가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자고요. 엄마도 소식이 궁금했던 차라 고모와 이모에게 기꺼이 전화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나간 일들을 얘기하더니 엄마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엄마가 우리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친척들도 망설임 없이 초대하고,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고모 댁에도 방문하

고 하룻밤 주무시고 오는 날도 생기고요. 혼자 계신 고모와 차츰 격이 없어지며 고모를 친구처럼 여기는 듯 엄마도 조금씩 맘이 편해지는 것 같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도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즈음의 가장 반가운 전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지하철 타고 병원에서 약 타고, 이모네 집에 나물밥 먹으러 가는 중인데 오늘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갈 거다. 오늘 내가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제야 아빠가 물려준 숙제를 힘겹게 마친 느낌이랄까요? 종일 우울해하며 우리 전화만 기다리던 엄마가 오늘은 바쁘다니, 엄마가 바쁠 때도 있다니, 그래서 오늘은 전화하지 말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그 순간은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전화였습니다.

힘들 때는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좀 더 오래 살다 가시지 몸 약한 동생과 호된 갱년기를 겪는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고 힘든 엄마를 어떻게 부양하라고 그냥 가셨느냐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그 어려운 일을 저와 동생이 아닌 엄마가 해내신 거예요. 평생 갇혀 있던 우물에서 용기 있게 뛰쳐나온 우리 엄마.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얘기 잘하고 눈치도 안 보며 당당하게 잘 어울리세요. 물질에도 인색했는데 요즘은 나누고 베풀고, 잘 웃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목소리도 생기 있고, 몸 관리도 하며 잘 지내세요. 이제는 '소심란'이 아닌 '행복한 란'으로 여생을 쭉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참 대단하고 용기 있는 분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Letter 08

우울이

바닐라라떼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저는 '우울이(우울증)'와 함께 사는 '바닐라라떼'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올해 33세. 20대 초반에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울감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됐지만 그때는 정신과에 가고 싶어도 갈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다가 20대 초반에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갔어요. 그 후로 사는 지역에 따라 병원이 바뀌긴 했지만 정기적으로 상담받으면서 약도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울이'와 함께 사는 지금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늘 정신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는 고용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으나 잘 되질 않았습니다. 열 군데 넘게 원서를 썼는데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저는 꽤 즐겁습니다. 저를 위해 제 정신건강을 위해! 넘어진 김에 조금 쉬어가기로 했거든요.

3월에는 꼭 합격하고 싶었던 회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순간 화와 짜증이 났지만 저는 바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그동안 미뤄뒀던 운전면허부터 따자!'

필기와 기능시험만 통과해놓고 취업 때문에 미뤄뒀던 주행 시험 등을 그 길로 바로 일주일 만에 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성취감이 정말 컸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죠. 두 번째 도전이었던지라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면허를 따고 나니 다른 도전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4월과 5월의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1번 헬스클럽 가서 운동으로 살 빼기.

2번 운전 연습하기.

3번 한국사 공부하기.

한국사 공부는 몇 년 후에 '9급 지방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개월간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자신을 위해서 4월과 5월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은 힘들겠지만 착실히 준비해서 몇 년 안에 '9급 지방 공무원 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계약직으로 일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돈은 벌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우울이'와 함께여도 잘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울이'가 좀 성가신 면도 있습니다. '불안이'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저의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저는 불안을 아주 잘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기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새로운 업무가 주어질 때마다 불안을 너무 크게 느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닐라라떼 님은 아마 잘하실 거예요.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준비를 하거든요."

'불안이'가 자주 찾아와서 피로하긴 하지만 불안을 잘 달래가며 생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더 편해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울이'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과 진료실에서 담당의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병원 가는 길이 늘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울이'가 찾아와서 힘든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다니는 걸 너무 불쌍하게도 너무 이상하게도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의 저와 저의 생활, 저의 주변이 참 좋습니다.

Letter 09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이경애 |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그는 자전거에 앉아서 내게 우산을 건네주며 뒤에 타라고 했다.

"응, 탈게."

나는 자전거 뒷자리에 앉았다. 1인용 자전거라 뒷자리는 평평한 쇠로 되어 있는 짐칸이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방석을 끈으로 고정해놓아 푹신했다. 그는 내 가방을 받아 자전거 앞 바구니에 겨우 끼워 넣고 출발했다. 비가 오고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야 했기에 천천히 페달을 돌리며 집으로 향했다.

한 손으론 그를 잡고 또 다른 손으론 우산을 받쳐 든 나는 중학교 2학년생. 줄지어 걸어가는 하굣길 친구들이 흘깃흘깃 쳐다보는 게 쑥스러웠지만 자랑스러웠다. 깍쟁이였고 가리는 것도 많았던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신기했다. '너희들 이런 아버지 있니?'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비 오는 날, 아버지가 데리러 온 아이는 나뿐이었다.

'대낮에 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럽겠지만, 경찰관이기 때문에 하루는 근무하고 다음 날은 쉰단다. 야근하고 피곤한데도 나를 데리러 오신 거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주룩주룩 오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는 잘도 달렸다. 괜찮냐는 듯 가끔 나를 돌아보던 그의 하얀 얼굴은 햇살처럼 눈부셨다.

비가 그쳤다. 나는 들고 있던 우산을 하늘을 향해 던졌다. 바람에 실려 날아오르던 우산은 무지개를 그리며 하늘나라로 멀리멀리 올라갔다. 두 손을 뻗어 아버지를 꽉 잡고 그의 따스한 등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아기처럼 스르르 잠 속에 빠져들었다.

이 이야기가 그날의 일기장에 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마음속에 아쉬운 기억만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가신 야속한 분. 박힌 가시처럼 따끔거림으로 남은 아버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한창 사춘기였던 나는 까칠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감추고 싶은 것이 왜 그리도 많았는지.

어린 마음에 경찰관인 아버지의 직업도 창피하게 생각했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친구들 아버지가 부러웠다.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는 맞교대 근무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날은 친구들도 마음대로 집에 데려오지 못했다.

"너희 아버지는 왜 집에 계셔?"

이 질문이 나오는 것도 싫었고 설명하기는 더더욱 싫었다.

그날 아침에는 해가 나왔었는데 하교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흐려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버스가 다니기 애매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어 등하교 때에는 줄지어 걸어가는 학생들이 길을 가득 메웠다. 나는 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잘대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띠링띠링" 자전거 경적이 들렸다. 앞서 걷는 학생들 뒷모습 사이로 자전거 한 대가 천천히 오고 있었다. 아버지였다. 집에서 입던 빛바랜 갈색 남방에 회색 바지를 입고 허름한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게 하고 싶었다. 가슴이 콩닥콩닥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자식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는 건지 아버지는 단번에 나를 찾아냈고 내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경애야, 자전거에 타. 비 많이 맞았네. 같이 타고 가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주위에는 아는 친구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바로 옆에는 내가 짝사랑하던 전교 회장 오빠가 친구들과 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좀 더 멋있게 입고 오지. 옷이 저게 뭐람. 낡은 자전거는 왜 안 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것까지는 괜찮았다. 대낮에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는 사실이 나를 제일 속상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들은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아냐, 안 탈래. 우산만 주고 가. 친구들이랑 걸어갈 거야."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우산 여기 있다."

아버지는 두말없이 우산을 손에 쥐여줬다.

되돌아가던 아버지의 모습은 우뚝 솟아올라 그 길에 아무도 없고 마치 아버지 혼자 가는 듯 보였다. 그 많던 학생이 내 눈엔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자전거 위 아버지의 쓸쓸한 등이, 축 처진 어깨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당장 달려가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할까.'

그러나 탈 자신이 없었다.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께 사과하려 했지만 입가에만 맴돌 뿐 자기 전까지 끝내 하지 못했다.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 그럼 괜찮다고 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 이미 사과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내색은 안 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무척 유머러스한 분이셨는데 말이다.

그렇게 시간은 잘도 흘렀다. 1년이 지나가고 몇 해가 지났다. 철없던 나는 그 일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이 그리도 바쁘셨을까. 몇 년 후 황급히 내 곁을 떠나가셨다. 나는 사과 한마디도 못 한 채 멍하니 보내드려야 했다. 그의 애틋했던 부성애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메아리로만 돌아올 뿐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넘치도록 받던 사랑, 그것이 뭔지 알기도 전에 잃어버린 아버지. 평생 줄 사랑을 바쁘게 쏟아붓고 간 그의 허름했던 자전거는 가끔 "띠링띠링" 나를 불러 세운다.

Letter 10

문안실댁 이야기

현서인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50세 되던 해, 친구 따라 경남 거창에 놀러 갔다가 무려 7년이나 귀촌 생활하고, 지금은 충남 당진에 살고 있습니다.

거창에서 저는 툇마루가 있는 아주 오래된 시골집에서 살았는데 '동편댁'이 빌려주신 집이었어요.

바로 앞에는 '상천댁'이 사셨고, 뒷집에는 '진양댁'이 사셨는데, 진양댁 할아버지는 햇볕 따뜻한 날 강아지랑 노는 걸 좋아하셨지만 진양댁 할머니는 강아지를 늘 구박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댁, 무슨 댁 이름 대신 그렇게 불리던 할머니들은 거의 주변 마을에서 시집오신 분들이었어요.

오늘은 그때 한동네에 살았던 '문안실댁' 할머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귀촌하고 다음 해, 그때도 요즘 같은 봄이었어요. 동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문안실댁이 아랫마을 평판이 좀 안 좋은 할머니와 무슨 어린아이들처럼 막 싸우고 계셨지요.

"야, 니가 내 신발 마을회관 옥상에 던졌노?"

"그래~ 나가 던졌다, 와? 으짤래?"

"와~ 미친나? 무슨 일로 내 신발을 옥상에 던졌노?"

"니가 회관에서 나 욕했다고 하드라. 니 와 나 욕하노?"

"그래서 던졌나? 내가 니 욕했다고 누가 그카드나?"

두 분의 싸움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나마 저와 단짝처럼 지내던 상천댁 어르신의 중재로 끝이 났지요.

문안실댁 할머니는 원체 마을 분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말투부터 모든 게 그냥 좀 화난 사람처럼 매사 쌀쌀맞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에 부쳐 못하는 밭이 있다. 니 함 해볼래?"

"진짜요? 저, 작은 밭을 가져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할머니 도지는 얼마를 드릴까요?"

"니가 도지를 아노? 누가 그러드노? 상천댁이 도지 주라 하드나?"

"아니요. 저도 도지는 알아요. 그냥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음… 그럼 밭에서 나는 거, 반을 내한테 도."

"반이요? 그건 안 되죠. 그냥 제가 알아서 성의껏 드릴게요."

그렇게 제 귀촌 첫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안실댁 밭에서 농사짓는다는 소식에 마을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좋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극구 말리셨어요.

하지만 밭농사가 꿈이었던 저는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상추, 들

깨, 참깨 여러 가지를 일단 많이 심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처음 해보는 농산데도 수확물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마을 분들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 문안실댁만 빼고요.

"니, 그 고춧가루 반은 나 주래이."

"반은 너무하죠. 그래서 제가 도지 드린다고 했던 건데."

"내는 분명히 말했다. 니네 밭에서 나는 거 반은 다 내도~."

그리고는 문안실댁은 그 후로 아무 때나 저희 집에 와서 말도 없이 호박을 집어 가고, 상추를 가져가고, 제가 2박 3일 딸 집에 다녀온 사이엔 밭에 있던 옥수수도 다 따가셨지요.

화가 난 저는 밭에서 돌아오다 항상 무슨 팀처럼 붙어 다니시던 어르신들과 마주쳤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길래 "수확하려던 옥수수를 누가 다 따갔다" 말씀드렸지요. 상천댁은 듣자마자 화를 내셨어요.

"아이고 문안실아~ 제발 새닥 좀 그만 괴롭히래이~ 니 자꾸 그럼 신문에 날 일이다. 밭을 줬으면 새닥꺼다. 참말로 그라지 말레이~ 신문에 날 일이다."

"아니 왜 새닥 편만 들어? 니 누구 편이고. 아이고마~ 니 누구 편이고!"

그리곤 저를 따로 막 찾아오셔서 "야, 새닥아~ 니 나를 도둑년으로 몰았어? 내가 도둑년인가? 왜 나를 도둑년이라고 말했노?" 이러면서 아주 무섭게 따지셨죠.

'내가 미쳤지. 어르신들 말씀 들을 걸….'

엄청 속상했습니다. 농사짓는 재미도 다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 후로도 문안실댁의 욕심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을 분들과 부딪히며 사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징글징글한 할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하루는 상천댁에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새닥에게 너무했나?"

"너무한 정도가 아니다. 신문에 날 일이다."

"그럼 언제 새닥한테 미안했다고 말해주라."

그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은 좀 풀렸고, 겨울 지나 봄이 되어도 문안실댁이 회관에 나오질 않으셔서 상천댁과 함께 댁으로 가보니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계셨어요. 혼자 라면을 끓여 드셨다고 하더군요. 시골에선 어르신들이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몸이 아프면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동네 할머니들의 인사도 못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방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이렇게 가실 걸 왜 그러셨을까. 좀 편하게 동네 분들하고도 재밌게 지내다 가시지.'

저와 안 좋은 시간 보내신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잘해 드릴 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디 하늘에선 부드럽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자상한 문안실댁으로 지내시길, 편히 쉬시기를 빌어봅니다.

그리고 상천댁, 당산댁, 진양댁, 동편댁, 전주댁, 다들 잘 계시지요?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모두 그립습니다.

Letter 11

나의 안전도 못 챙기는 안전관리자

애청자

저는 작년에 나이 마흔에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운 좋게 입사하였습니다. 요즘 한창 사회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저와 같은 안전관리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덕에 안전관리자들의 취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푸념을 하면 그 뒤에는 '원래 직장생활이 다 그렇다'는 답변이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요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대개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저처럼 작은 회사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의 3분의 2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급도 대리. 그 때문에 저보다 나이 어린 선배들에게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라 그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뀌는 근무시간과 당연시되는 야근입니다.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저녁밥 먹는 와중에도 사수한테서 걸려 오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전 회사는 비교적 가족적인 분위기라 그랬는지 모르면 바로 물어보고 서로의 일을 보완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이곳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데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저의 사수라는 사람이 완벽주의자라 같이 일하는 누구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좀 찾아보고 물어봐라. 누구는 가르쳐줘서 알았냐? 다 눈치껏 보고 따라 하는 거지!" 이런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물론 눈치껏 따라 하지 못한 것이 제 잘못일 수 있지만 기준을 정해 줘야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인즉, 저 혼자 기준을 정하고 움직였다가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제가 막내라 사수가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일, 특히 여직원과 부딪쳐야 하는 일은 죄다 저에게 몰아줍니다. 그리고 뭔가 결함이 발생하면 면박을 주는 식이죠. 한번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는데 본사 팀장님과 통화하면서 불필요한 얘기를 왜 했냐?"며 다른 팀원들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고 젠틀한 사람인 척 웃으며 지냅니다.

얼마 전에는 연차를 내고 아내를 출근시키고 5살 아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의 책임감 때문에 사수에게 전화해서 그날 처리해야 하는 일, 즉 여직원에게 인계해야 하는 일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수라는 그 사람

이 전화기에 대고 "여태 이것도 모르고 있었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침밥은 언제 주나~' 하며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전화기에 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거푸 말하고, 전화를 끊고도 아들 앞에서 우울한 티 내지 않고 표정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배고팠지?" 이러면서 밥을 차려주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날 하루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최대한 많이 쬐며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어떤 날은 가슴 통증 때문에 몸은 피곤한데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독주를 한잔 마시고 잠을 청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요즘 들어 저의 멘탈에 한계가 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제 나이 마흔한 살, 다들 회사에서 자리 잡고 관리자로 일하는데 여태 자리도 못 잡고 시달리며 일하는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제 나이 스물여덟에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 편입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며 바쁘게 보낸 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 13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승자였던 적이 없고 늘 패자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이 낮아져 집에 오면 아내와 아이를 웃으며 대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직장생활을 더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나는 안전관리자인데 스트레스로 인해 나의 안전도 못 챙기면서 누구의 안전을 챙길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감도 듭니다.

이제 직장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건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다시 깊은 생각에 빠져 봅니다.

Letter 12

27년 소금 인생

김윤주 | 충남 태안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일을 하셨다. 원래 우리는 부천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 권유로 시골로 내려와 엄마는 농사를, 아버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염전 일을 배우며 온갖 힘든 일을 다 하셨다. 너무 힘들어서 남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간다는 염전 일을 아버지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하셨다. 유일하게 몸을 뉘고 쉴 수 있는 날이라고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염전으로 일을 가셨다.

새벽 6시가 되면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작업복을 챙겨 입으셨다. 아버지의 유일한 출근 수단은 오토바이였다. 해가 다 뜨지도 않은 날도 아버지는 오토바이 불빛을 벗 삼아 어두운 새벽길을 달리셨고, 일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진다고 멋을 부리거나 제대로 된 옷을 입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늘 얼룩지고 허름한 옷

을 입고 다니는 아버지한테 남들은 “옷이 그게 뭐냐?”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로 말씀하셨다.

“일하는데 좋은 옷 입고 와서 무슨 일을 해? 어차피 금방 더러워지는걸!”

아버지가 일하는 염전은 한여름 땡볕에도 그늘 한 점 없는 곳이다. 타일로 된 염판에 바닷물을 가두고 뜨거운 태양 빛이 내리쬐는 한낮이 되면 타일이 뜨거워지면서 소금 알갱이가 만들어진다. 그러고 나면 타일 위에서 소금을 수확하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피부는 늘 새까맣게 그을리게 된다.

아버지가 일하는 염전은 쉴 새 없이 바쁘다.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소금을 손수레에 가득 실어 나르고, 소금을 포장하고, 큰 화물 트럭에 소금 가마니를 실어주는 일까지 아버지의 여름은 남들보다 더 뜨겁고 더웠다. 어떤 날은 햇볕이 너무 뜨거워 등짝에 허물이 벗겨지기도 하고, 밤새 등에 난 땀띠가 가려워 잠 못 자는 날도 허다했다.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가면 온몸이 아파 끙끙대는 아버지의 신음이 한밤중에 거실에 가득 울리기도 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 오시는지, 얼마나 고된 일을 하며 우리를 가르치셨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우리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뿐이었다.

그런 우리 아버지는 이제 68세, 나는 36세. 보통 아버지 같은 나이가 되면 집에서 자식들 효도 받으며 편히 사실 텐데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염전에 계속 다니신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젊음을 뜨거운 땡볕에 고스란히 녹여 버린 아버지의 27년 세월.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라는 이름표를 달고 ‘가장’이라는 어깨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오늘도 오토바이 불빛을 벗 삼아 안개 낀 새벽을 달리신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고생만 하시는 아버지께 딸이 드리는 이 편지가 딸이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패가 되면 좋겠다. 오늘도 여성시대를 들으며 혼자 묵묵히 염전 일을 하실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존경한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늘 걱정만 끼치는 딸이라 죄송하지만 꼭 효도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자고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전국의 염전에서 힘들게 땀 흘리며 귀한 소금을 만드시는 모든 분께도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올여름에도 힘드시겠지만 건강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Letter 13

우리만의 속도

이윤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엄마와 단둘이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일찌감치 독립한 오빠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빠와 살던 네 식구의 모습보다 이젠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 더 익숙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서로를 동거인이라 부르는 모녀의 생활은 투덕투덕 다이내믹합니다.

어느덧 제가 서른 살이 넘고 엄마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근래에 엄마의 일을 대신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앱을 다운해서 신청하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정아, 이리 와서 네가 좀 알려줘."

"엄마, 지금은 해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웬만한 건 모바일로 처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매번 제가 대신할 순 없잖아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귀찮은 일을 해치우듯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우리 나이엔 이런 일은 머리를 싸매도 어려워. 뭘 잘못 누를까 봐 겁도 나고, 네가 천천히 알려줘야지" 하셨습니다. 저에겐 눈 감고도 쉬운 일이 엄마에겐 자음만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막막하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었을 때 여느 때처럼 엄마가 제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정아, 연말정산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네. 깜박하고 너무 늦게 말했어.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줘."

그런데 하필 상사와의 갈등으로 여유가 없던 그날,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알려드린 게 벌써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잘 보시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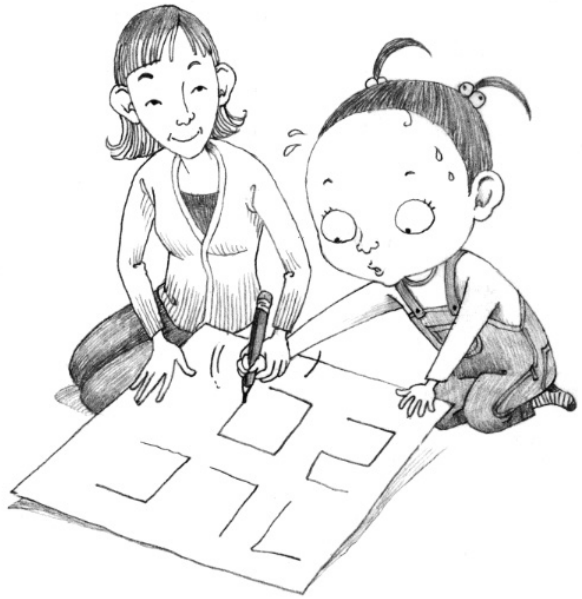
제가 화를 내자 엄마도 울컥하셨는지 "언제 알려줬어? 그냥 네가 빨리해버리고 말았지. 난 네 속도 못 따라가" 그러시는 겁니다. 엄마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성질대로 달려들던 제가 가만히 있자 엄마는 이어서 쌓여있던 감정을 쏟아내셨어요.

"처음부터 빨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너 젓가락질 배우는 거, 한글 떼는 거, 다 네 손 같이 잡고 가르쳐줬어. 넌 생각도 안 나겠지만."

그렇게 오래전 기억을 떠올려 보니 자모음을 쓰는 것부터 내 손을 포갠 엄마의 손이 연필을 따라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 정이 잘할 수 있어. 다시 천천히 써보자."

젊은 날 주름 없는 엄마의 손과 따뜻한 격려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엄마가 어려워하는 일을 직접 하실 수 있



게 도와드리기보다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배우려고 하던 걸 하나하나 제 속도에 맞춰 가르쳐주셨던 겁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어. 너도 운전하기 무섭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컴퓨터, 휴대폰 다루는 게 겁나고 어렵다고."

서른이 넘도록 운전을 못 하는 제게 운전은 공포 그 자체인데요. 엄마가 친구들은 딸이 드라이브시켜 준다며 부러워할 때마다 난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지 말라며 큰소리를 치곤했습니다. '저도 해드릴게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만큼 운전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요.

저는 그제야 엄마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친구들이 부러워 저를 재촉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나빠지면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불편해졌기 때문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죠.

어릴 땐 모든 걸 부모님에게 질문하고 끊임없이 배웁니다. 저 물건은 뭐라고 불러요? 젓가락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글은 어떻게 해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장성한 자식이 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때가 오게 되죠. 서로의 역할이 뒤바뀌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사드리고 두둑한 용돈을 드려야만 효도가 아닌데 저는 고작 휴대폰 사용법 가르쳐 주는 일조차도 귀찮아하고 짜증을 냈단 사실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배운 것들로 오늘을 충만하게 살고 있는 제가 이제는 엄마에게 필요한 일을 도와주고 배운 것을 돌려줄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돌아오는 아버지의 기일엔 내가 직접 운전하는 차에 엄마를 모시고 아빠를 만나러 공원에 갈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요.

그리고 엄마와 약속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속도에, 엄마는 나의 속도에 맞춰 서로에게 꼭 맞는 족집게 선생님이 되어주기로요. 그렇게 우리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두려운 것을 극복해 갈 것입니다. 또 운전연수를 통해 시내 주행을 할 수 있게 된 저는 사실 해보기 전 막연한 두려움이 도전을 힘들게 할 뿐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다는 교훈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요즘은 봄바람 타고 조수석에 탄 엄마와 함께 운전 연수 겸 여기저기 구경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출발선에 서 있을 때의 설렘과 기대로 우리 모녀는 느리더라도 규정 속도 지키면서 씩씩하게 나아가보려 합니다.

Letter 14

가슴 시린 행복의 눈물

김순득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출근길에 여성시대를 들으며 지난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흐른다. 이 눈물은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다.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했고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다. 딸이 태어나 백일도 안 되어서 시작된 바람은 끝이 없었다. 목수라 전국을 떠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여자가 잘도 생겼다.

시집 식구들은 술독에 빠져 살았다. 시어머니는 술 때문에 위에 구멍이 나서 53세에 돌아가셨다. 그때가 우리 딸이 3살 때였다. 홀시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며느리 욕을 해댔다. 술에 취해 때로는 쫓아내려고까지 해서 시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아이들과 밖에서 숨죽이며 기다려야 했다. 남편은 일을 핑계로 타지로 돌며, 여자, 포커, 술, 낚시, 사냥, 볼링을 즐겼고, 자신의 취미생활 도구를 차에 싣고 다녔다.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한테 치매가 왔다. 그는 나 모르게 자기와 시아버지를 거주지 주소에서 퇴거하고, 치매 걸린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자 통장까지 가지고 나가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모두 자기가 쓰고 집에는 돈 한 푼 안 주고 밖으로만 돌았다.

결국 시아버지와 아이들은 모두 내 차지가 되었다. 그렇게 8년을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시아버지가 치매로 자꾸 집을 나가니 나는 직장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해서 시아버지 목에 건 치매노인 안전목걸이에 있는 보호자 연락처를 그 사람 번호로 바꾸었다. 시아버지가 또 집을 나갔다.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갔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끝낼 수 있었다.

2003년, 아들 중2 때 이혼했는데 시아버지를 퇴거신고 하면서 의료보험은 계속 연체되고 있었나 보다. 연락이 와서 그 또한 나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버려졌다. 악연이었다.

힘들게 아들을 대학까지 가르쳤다. '이제는 조금은 나아지겠지' 기대했지만 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서른여섯이라는 나이만 먹었다.

힘든 세월을 보내는 나를 보고 주위에서 사람을 소개해주었다. 우리는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남은 세월을 같이하기로 했지만 나는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이었다.

나보다 4살 위인 그 사람은 180cm 키에 82kg, 서글서글한 눈매와 뚜렷한 이목구비, 조금은 거만한 듯 점잖았다. 우리는 만날수록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그 사람의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큰 병원에 가니 만성신부전증.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그렇지. 복 없는 내게 행복은 사치일 거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퀭한 눈으로 이렇게 살아 무엇해."

나는 그 사람 사정이 가슴 아파서 굳은 결심을 했다.

"당신과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나 혼자 쓸쓸히 길게 살면 무엇하겠어. 자기야, 기운 내! 내가 건강하잖아. 건강하게 20년 살 거, 내 신장 받고 같이 행복하게 10년씩 살자!"

주위에서 다 말렸지만 그때부터 나는 유기농 우렁 현미와 현미찹쌀, 저염식 반찬을 해서 그를 보살폈다. 그는 건강이 좋아져서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씩만 병원에 가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나더러 가끔 얼굴이 어둡다며 걱정이 있느냐고 자꾸 묻기에 아들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은 왜 이제야 그 얘기를 하느냐며 아들에게 중장비 면허를 따게 하고 친아들처럼 열심히 가르쳤다. 아들은 오늘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은 일 나가며 나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김 여사! 이제는 마음 편히 웃는 일만 있을 거야."

그는 올해 내 환갑이라고 차가 오래됐다고 바꿔주며 환갑 선물이라며 활짝 웃었다. 새 차를 타고 출근하며 여성시대를 듣자니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행복해서 가슴이 저민다.

"고맙고 고마워요. 당신과 남은 생 같이 하며 열심히 보답하고 보필하며 살게요. 사랑해요 여보!"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듯 나는 지금 매우매우 행복하다.

이달의 손편지

국화옆에서

최순옥 | 서울 성북구 정릉로

며칠전 우리동네 유일한 산책길인
개천길을 걷다가 국화를 만났다.
거의 5년만이다.
'국화'는 이메일 닉네임인데 컴퓨터
배우다 서로 닉네임으로 부르기로 했었다.
나의 닉네임은 '룸비니'이다.
크리스찬인 내가 부처님 태어나신 곳
룸비니라니!
인도여행중 룸비니에서 느낀 감정은
특별했고 잊혀지지 않는 단어이기에
닉네임으로 떠올랐다.
그러고보니 국화는 국화꽃을 특히
좋아했나보다.
그동안 우리는 할말이 많았다.

"난 지난 일년간 고관절 수술로
꼼짝못했어. 이제 겨우 걷는거야."
나보다 세살적은 국화는
"언니, 나는 6개월전에 폐암 4기
판정 받았어. 수술도 못한대-?"
믿기지 않았다. 평소에 엄청 건강해서
산도 날아다니던 사람인데 -. 그리고
지금보기도 나보다 살 걷고 멀쩡한데
폐암 4기라니 -.!"
그래서 매일 공기좋은 산에가서 몇시간씩
있다가 집에 간다고 한다.
산에 있으면 몸상태가 훨씬 부드럽단다.
"국화야-, 이제부터 산에 갈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요즘 매일 국화와 산에 온다.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천자문, 영어책,
중국어책들, 독학 일본어 등등 베낭에
책들을 잔뜩 짊어지고 -.
국화는 공부하고 책읽기를 좋아해서
나는 국화를 좋아했었다.

우리는 전에 배웠던 기초적인 외국어지만
한 하나를 먹어도
"하오츠마?(맛있어?)" 하고 물으면
"도떼모 오이시이데스네.(매우 맛있네)"
라고 대답하며 깔깔댄다.
"우리아버지는 왜 나를 중학교에 안
보내주었나몰라-. 내가 초등학교 다닐때
책보는게 좋아서 도서관에서 살았잖아.
중학교 못가니까 도서관에 갈 수 없는게
슬펐어. 그때는 사골이라 학교도서관밖에
없었거든-, 그러다 열여섯살에 서울로
올라다서 양장점에 취직을 했어.
재단판 위에서 삼년을 자고 지내며
기술을 배워서 양장점을 차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한가지 맹세한 일이 있지.
아이들대학만 보내면 그후는 내공부
하리라고."
워낙 알뜰하고 부지런한 국화인지라
꿈을 이루었다. 특히 한자공부를 좋아해서

소원이던 천자문을 다 외워서 쓸수 있단다.
오늘은 산에 올라와 벤치에 앉아 바지를 걷어 올리고 드러낸 국화의 다리가 온통 피딱지이다.
"왜 이래?"
"약부작용으로 가려워서 긁으니 이리 되었네. 햇빛을 쬐이면 한결 괜찮아."
이럴때만 폐암 4기라는게 실감난다.
민터넷에 찾아보니 생존율 5%
갑자기 나빠지면 급속도로 악화된다고.
오늘 4월이면 1년이다.
우선 국화꽃피는 가을까지라도 버텨주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공부할게 많은데 ---.
오늘도 우리는 책을 본다.
백년을 살것같이 소녀처럼 공부한다.
국화야!
내가 네옆에 있을께!
넌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여성시대 사진방



[7810] 새벽 3시부터 나와서 바닷가 홍합 까는 작업장입니다.



[7744]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 절로 미소 짓게 만들어 여성시대에 보냅니다.



[6384] 저는 중고거래장터에서 라디오를 저렴하게 구입해 언니들 친구들 나눠주는데 주파수를 MBC로 맞춰서 주고 있어요.



[5333]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듣기만 했는데 직접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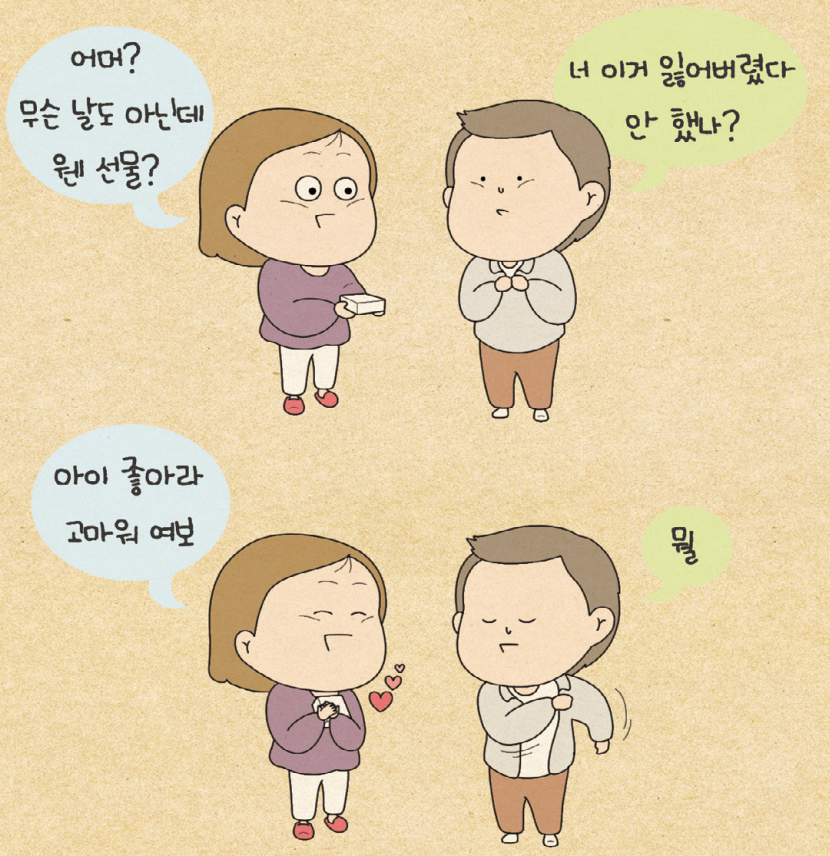


[1932] 매일 매일이 전쟁터 같은 요양병원입니다. 동료 선생님 따님이 힘들어하는 엄마와 엄마 동료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했답니다.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의
여성시대 가족 정소라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무뚝뚝함의 결정판인 남편에게
무선 이어폰을 선물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준 이어폰을
매일 끼고 다녔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느 날부터 한쪽 귀가 먹먹해지더니
이윽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선물을 한동안 쓰지 못함에 아쉬웠고,

주말부부인 터라

혼자 약을 넣으려고 자세를 취하니



결국 귀에 뿌직하고 터져버린 약은

온 사방 군데 다 튀어버렸고,



어이없는 웃음과 왠지 모를 쓸쓸함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살을 맞대고 사는 게

때때로 고난일지 몰라도



역시 평범해서 행복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난임치료제로 난임부부의 희망이 되다

IBK기업은행 공덕동지점 거래고객

㈜아이젠파마코리아 고정용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국내 난임부부는 약 21만 명으로 추정된다. 저출산 국가에서 무척 불행한 일이다. 아이젠파마코리아는 난임치료제 전문기업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출산이라는 개인의 기쁨을 넘어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이바지 하는 아이젠파마코리아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기업을 꿈꾼다.

아이젠파마코리아는 난임치료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난임치료 전문기업이다. 난임 전문병원에서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 시술 시 착상을 돕고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2주까지 사용되는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특화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사용되어 유럽 외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와 안전성 및 편의성을 입증받은 영국 L. D. Collins사의 사이클로제스트(Cyclogest) 질좌제를 국내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수용성 프로게스테론 피하주사인 스위스 IBSA의 프롤루텍스(Prolutex) 주사를 국내에 들여와 난임치료제 전문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더해나가고 있다.

프롤루텍스의 국내 도입은 난임부부의 고통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지용성이라 피하지방조직 아래 근육 내로 주사해야 해서 매우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자가 주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수용성인 프롤루텍스는 수용성이라 피하에 주사할 수 있어서 덜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자가 주사가 가능해 매일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출시된 착상 유도제인 사이클로제스트 400mg 또한 난임부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다. 기존에 있던 200mg의 제품은 하루에 세 번 투여해야 했다면 400mg의 제품은 고용량이다 보니 하루에 한두 번만 투여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젠파마코리아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2016년 창업 이래 매출이 매년 상승하여 올해는 약 24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용 대표는 회사 성장의 밑거름은 직원들이라는 믿음으로 업계 최고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9개







NGO 단체를 후원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 6년 만에 빠르게 성장해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지만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의약품을 허가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시간과 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국내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재고가 쌓이거나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없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창업할 당시 자금이 많이 부족했어요. 당시 계약했던 프롤루텍스를 들여오려면 목돈이 필요했는데 기존에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또 빌리기가 쉽지 않았죠. 타 은행에서 대출을 퇴짜 맞고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어준 곳이 바로 IBK기업은행입니다."

직원 2명에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한 아이젠파마코리아의 잠재력을 믿었던 IBK기업은행의 선견지명이었다.



IBK기업은행 공덕동지점 임동영 지점장은 "아이젠파마코리아는 국내 21만 명이 넘는 난임부부의 희망"이라며 "수입을 주로 하는 아이젠파마코리아의 외환거래는 IBK기업은행이 책임지겠다"고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었다.

아이젠파마코리아는 'Good to great'를 꿈꾼다.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아이젠파마코리아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아이젠파마코리아 고정용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
2.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라
3.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

㈜아이젠파마코리아

대 표 고정용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4층
전 화 02-711-0141~2 **홈페이지** http://izenpharma.com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다

IBK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 거래고객
한국학술정보㈜ 채종준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한국학술정보는 지식 콘텐츠 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DB)서비스, POD(Publishing On Demand) 인쇄, 옵셋 인쇄 세 가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 종이책의 한계를 벗어나 디지털 콘텐츠와 종이책이 공존하는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세계 출판사 및 도서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1992년 설립된 한국학술정보의 첫 번째 사업은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로, 국내 학술 논문과 정기 간행물, 특허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 엔진을 제공하였다. 국내 최초로 학술정보 원문 검색 시스템인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론칭하여 현재 약 3,320여 종의 간행물 및 135만 건의 학술논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책 세일즈를 통해 출판 업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채종준 대표는 세일즈를 하며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게 된다. 종이책이 물리적 부피로 인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 더불어 시공간적 제약 때문에 판매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책의 영구성 때문에 재구매율이 거



의 없어서 소비자가 한정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채종준 대표가 찾은 방안이 바로 종이 인쇄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9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고 채종준 대표도 컴퓨터에 문외한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포기하지 않았고 발품을 판 끝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만나 DB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늘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미 변화하고 있는 출판시장에 대해 읽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 종이책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대비했었어요. 그래서 종이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채종준 대표의 이런 생각은 대량 인쇄로만 책이 발간되는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받아





소량 인쇄를 할 수 있는 POD 인쇄가 각광받는 시대가 오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학술정보는 20여 년 전 DB 서비스에 이어 업계 최초로 POD 인쇄를 시작했고, 원하는 만큼 인쇄할 수 있는 POD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출판 인쇄 분야의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까지 7,000여 종의 POD 출간 실적을 달성했으며 4년 전부터는 옵셋 인쇄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또한 최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One Stop Solution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출판 인쇄를 의뢰하고 실시간으로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근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IBK기업은행의 도움으로 설비를 증설하고 꽤 큰 수주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과 상생할 수 있는 우호관계를 맺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IBK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 양희준 지점장은 "한국학술정보는 인쇄와 IT 업종이 합쳐진 기업으로 우리나라 인쇄 업체 중 최초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극찬하며,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IBK기업은행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50여 개 이상의 자체 개발 솔루션과 최신 인쇄 설비 및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학술정보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한다.



IBK기업은행 파주교하지점 양희준 지점장(왼쪽)과 한국학술정보 채종준 대표

한국학술정보 채종준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미래 시장을 예측하라
2. 생각을 실행에 옮겨라
3.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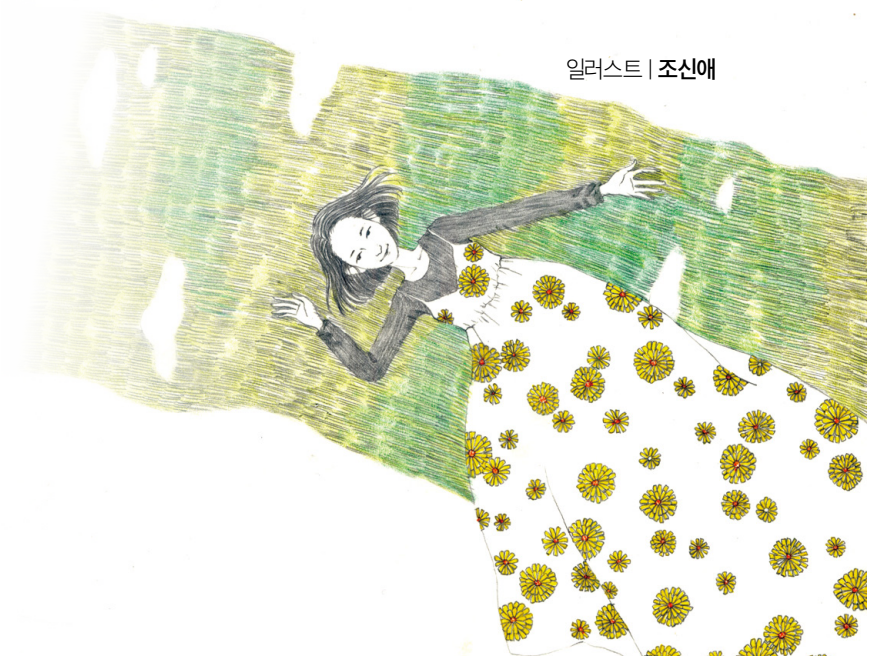
한국학술정보㈜
대 표 채종준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30
전 화 031-908-3181 **홈페이지** http://www.kstudy.com

코너 속 편지

장용의 단·필·충
81 세상에 소금이 되겠습니다
86 꿀보직의 추억
92 꼬인 군 생활

사랑탐구생활
96 곰 한 마리
99 오랜 기다림 끝에

주말엔 투유
105 친구 같은 형님께
108 딸기에게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세상에 소금이 되겠습니다

강민준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몇 년 전,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저는 단기사병으로 예비군을 관리하는 관리대 '기동타격 중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저의 외모만 보고 작전 장교님은 처음에 그러시더군요.

"자네는 공수부대에 갈 사람이 왜 단기사병으로 왔나?"

하지만 훈련 중 제가 운동장을 뛰는 모습을 보고 중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체격은 좋은데 체력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못 뛰어?"

"네?"

"우리 '기동타격 중대'는 순발력이 기본인데 자네는 너무 몸이 느려서 이건 뭐 기동이 아니고 미동이잖아. 우리가 미동 타격대가 될 순 없으니까 군 생활 동안 매일 운동 좀 하라고!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덩치가 크고 건장한 편이지만 몸동작이 느리고 보기와 다르게 체력이 많이 약한 저는 그 후로도 많은 조언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 사격훈련을 할 때도 다른 전우들은 표적지에 적든 많든 총알을 꽤 맞췄는데 저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단 한 발도 맞추질 못했지요.

"뭐야? 자네는 공중에다가 사격을 했나? 인생에 스치는 인연은 많지만 군인은 총알을 스치게 하지 않는다. 자네가 이러면 전우들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 모르나? 당장 연병장 열 바퀴 돈다! 실시!"

하지만 두 번째 사격에서도 세 번째 사격에서도 저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병장을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 저를 보며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끝내 몇 달 후 저는 인사장교님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네 보직을 좀 바꿔야 할 거 같은데 고향이 어디고? 뭐하다 왔나?"

"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나?"

"부모님은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십니다. 소금 채취하는 걸 틈틈이 도왔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 취사병 해보겠나?"

"취사병이요?"

"그래. 요리 좀 하나?"

"삼촌 식당에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오! 그래? 잘됐군. 그러면 당장 취사실로 가게."

그렇게 저는 기동타격 중대에서 본부 중대 취사병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취사실에 가 보니 상급자는 모두 전역하고 일병인 제가 최상급자였습니다. 제 아래로는 이등병 두 명.

"이등병, 너는 요리 좀 하냐?"

"아니요. 저는 중국집에서 배달하다 왔다니까 여기로 가라던데요."

"그래? 옆에 너는?"

"저는 잘 먹습니다."

"뭐? 먹지 말고 네가 요리를 해야지."

"요리는 잘하지 못하고, 간부님이 저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가서 잔반 처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진짜? 그럼 당장 우리 셋이 뭘 어떡하냐?"

심지어 그날은 제가 심한 봄 감기에 걸려서 맛도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기동 중대원들이 야외 훈련장에서 행군 겸 훈련을 한다는데 일단 점심용 국과 밥을 해야 했습니다.

"서 이병, 이거 맛 좀 봐봐. 어떤 거 같냐?"

"저는 맛있는데요."

"그래, 괜찮냐? 양 이병 너는 어때?"

"제 입엔 좀 싱거운데…."

"그래? 내가 지금 미각이 없어서, 그럼 소금을 더 넣자. 양이 많으니까 이 정도? 아니다. 한 이 정도? 아니야 아니야! 한 이만큼은 더 넣어야겠지?"

"어? 어어?"

"왜 왜 왜? 너무 많아?"

"네, 너무 짤 것 같은데요."

"그래? 근데 다시 할 시간은 없으니까 물 좀 더 붓고 다시 끓이자."

그때였습니다.

"야! 너희 지금 뭐 해? 당장 떠나야 하는데, 빨리 점심 트럭에 안 실어? 뭘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아, 그게 저희가 지금 국이랑 밥을…."

"중대장 말 안 들리나? 지금 훈련 늦었다고! 당장 출발하게. 빨리 트럭에 밥 실어!"

저와 후임병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야외로 훈련을 나간 기동타격 중대원들이 서둘러 돌아오더군요. 중대장이 다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 점심 누가 만들었나?"

"제가 했는데요."

"자네 염전 일 하다 왔다더니 그래서 음식을 죄다 염전으로 만들었나?"

"아니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미각을 잃어서…."

"간은 자네 혼자만 보나? 취사실 밥은 그전에도 참 맛이 없었지만 오늘은 진짜 맛없는데 짜기까지 하니까 도저히 뭘 먹을 수가 없더구먼!"

"아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물을 조금 더 붓고 끓이려고 했는데 중대장님이 시간 없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훈련 중에 중대원들 수통에 물이 부족해서 그냥 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 너희가 만든 염전국이랑 젓갈 같은 반찬을 먹고 훈련 중에 물이 동나서 훈련을 포기하고 지금 그냥 돌아왔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

"죄,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음식 짜게 하지 마! 한 번 더 그러면 용서 못해! 알겠나?"

그렇게 중대장님께 혼이 쏙 빠지게 혼나고 저는 기동 중대 전우들로부터 아주 심하게 항의 아닌 환영을 받았습니다.

"야! 강 일병, 고맙다!"

"담에 또 제대로 짜게 해줘라."

"이왕이면 한여름 혹서기 훈련 때로 부탁한다."

하지만 저는 전역을 얼마 안 남기고 취사병에서 PX병으로 또 한 번의 보직 이동을 하게 됐고, 다들 편하다는 PX병을 하면서도 예비군 형님들이 몰려드는 휴식 시간에 혼자 계산하다 거스름돈 잘못 주고, 외상장부에 이름 잘못 써서 돈도 못 받고, 컴퓨터 파일로 있던 장부마저 실수로 삭제해서 마지막까지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전역 전날, 인사 장교님과 중대장님이 그간 고생했다고 부대 밖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사 주시더라고요.

"자, 한잔 받아. 그동안 욕먹느라 고생했다."

"다 너 잘되라고 한소리니까 꽁하지 말고 기분 좋게 전역해라."

"저 때문에 두 분이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너는 이제 전역하면 뭐 하냐?"

"복학 전까진 아버지 염전 일 도와드리려고요."

"그럼 내 말 명심해라. 강 병장! 소금이 되어라! 국에 넣지 말고, 네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마지막까지 웃으며 저를 보살펴주신 예비군 관리 대대 김준위 인사장교님, 기동타격대 이대위 중대장님, 감사합니다! 꼭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장용의 단·필·충

꿀보직의 추억

애청자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 30대 애청자입니다. 2008년 2월,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바로 입대했는데 '토목공학'이라는 전공 때문인지 공병학교 후반기 교육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교육받고 배정받은 특기는 '지뢰병.' 위험한 무기를 다루는 보직이어서 부모님의 걱정이 크셨지만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꽃피는 봄날, 후반기 교육대에서 약 6주간 무시무시한 지뢰 교육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를 받을 때 숫자 4자리가 조합된 부대라고만 알려주고 위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군요. 간부님께 그게 어디냐고 여쭤 봐도 "글쎄 나도 잘 모르는 곳이네. 처음 들어보는 부댄데?"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함께 후반기 교육을 받은 동기들과 기차를 타고 이동하다 저 혼자만 충청도 부근 어느 중간 정차역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역사 사무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버스에 타라고 하더군요. 25인승 버스였는데 새 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30여 분을 달려서 도착한 자대는 마치 갓 오픈한 대학 캠퍼스 기숙사 같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우리 부대의 정체를요! 지금은 대중에게 공개되었지만 당시엔 비밀리에 창설되어 1년도 채 안 된 완전 새내기 기밀부대!

선임을 따라 생활관에 들어서니 더더욱 신세계였습니다. 깔끔한 바닥에 1인용 침대가 모두 신상, 큰 텔레비전과 부대원끼리 회의를 할 수 있는 넓은 책상과 분대장이 쓸 수 있는 단독 테이블, 거기에 드럼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제가 배정받은 침대는 매트리스에 비닐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어서 받은 모포, 침낭, 베개, 군장도 완전 새 거, 특A급으로 지급받았지요. 그때부터 저의 군 생활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편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설 부대인만큼 높은 계급의 선임들도 다른 부대에서 차출되어 온 분들로 서로 간섭이 덜해 부조리나 갈굼도 덜했습니다.

신병 배치를 받고 5일 정도 중대장, 행보관, 소대장들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지휘통제실에서 면담 대기를 하는 동안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그분들은 셔츠 차림으로 회의실을 다녀가시더라고요. 군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저에게 묻더군요.

"너, 컴퓨터 좀 할 줄 아냐? 기록 카드 보니까 자격증 있던데."

"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 다 할 줄 압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시켜서 취득해둔 자격증을 일일이 정성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관재과 5급 군무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관리하는 거야. 군에서 소유한 토지나 장교들을 위한 숙소, 관사 이런 곳의 서류를 정리하거나 수집하는 일이지. 지

금 근무 중인 병장이 3주 후면 전역이라 후임병을 찾던 중인데 너 한 번 해봐라."

그리고 그날 저녁, 일조 점호 시간에 "신병, 내일 아침 먹고 방탄 헬멧 말고 전투모 쓰고 나랑 관재과로 같이 가자" 말년 병장님 말씀에 생활관 여기저기서 "이야! 너 진짜 좋겠다" "넌 이제 땡 잡은 거야!" 부러움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던 것이 일명 야전공병, 공병대의 하루 일과는 군장을 하고 야전삽을 챙겨서 흙바닥에 엎드려 지뢰를 묻고 제거하는 일인데 저는 그 시간에 열 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군무원님과 함께 행정업무를 보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선임들이 야전으로 방탄 헬멧을 쓰고 훈련을 나가면 저는 혼자서 전투모를 쓰고 걸어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 주고, 군무원님 출근하시면 커피도 타 드리고, 손님이 방문하면 차를 내드리기도 했지요. 군무원님은 매일 아침 손수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시간을 즐기셨고 그 향을 따라 간부님들이 다방처럼 놀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 비서실. 저는 꿀보직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하루 일과 역시 힘들지 않았습니다. 개인 책상이 있고 보안정책상 인터넷은 되지 않았지만 군 인트라넷이 가능한 PC를 지급받았습니다. 짬이 좀 되던 군무원님은 자주 자리를 비우셨고 더러 출근을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저 혼자 텅 빈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일과가 끝나는 오후 4시 30분이면 퇴근을 알리는 군가를 들으며 군무원님께 인사를 드리고 생활관으로 퇴근. 생활관 선임들은 "야, 오늘도 꿀 잘 빨았냐?" "쟤는 어떻게 갈수록 얼굴이 하얘지냐?"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저를 괴롭히거나 갈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착한 사람들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참 잘했거든요.

저를 제외한 분대원들은 종일 흙밭에서 훈련하다 보니 전투복을 매일 세탁해야 했는데 전 중대원이 다 같이 훈련을 마치고 세탁하려니 매번 세탁기와 건조기에 대기줄이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과시간에 잠깐 생활관에 들를 수가 있었지요. 그때 소대원들의 빨래를 돌리고 모포를 널어주고, 마치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하는 아내처럼 내무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연히 선임들은 고마워했지요.

관재과 일에도 힘든 일이 있긴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국방부에 이것저것 현황 보고를 해야 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야근을 했는데 등기부 등본 몇 부씩 복사해서 분류하고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도였죠. 그런데도 야근을 하는 날이면 군무원님은 "야! 먹고 해라" 두 손 가득 통닭을 사다 주셨습니다. 저는 일손이 필요하다며 제가 아끼던 후임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야근을 핑계로 사제음식 회식을 만끽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은근 저를 따르고 좋아했던 후임이 많았습니다.

행정병을 하면 그 정도 꿀은 기본인데 뭘 그걸 자랑하냐 말씀하는 군필자들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제 보직은 꿀보직이었다는 걸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유격훈련, 혹한기훈련은 전 부대원 대상이기 때문에 꼭 참가를 해야 합니다. 저도 40킬로미터 행군에 참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훈련이 있을 때마다 군무원께서 "야~ 급해 급해! 비상! 너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냐!" 행군 도중에 차를 가져와 저를 데려가고 부대에 복귀하면 "쉬어~ 거기 컵라면도 좀 먹고 아

님 내무반에 가서 좀 자다가 내일 다시 오던가" 이러면서 막상 별일이 없었습니다. 큰 훈련이나 고된 훈련에서 저를 늘 구출해주셨지요. 그러다보니 일병과 상병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본래의 지뢰병 소대원 훈련을 받지 않아 야전 일이 서툰 관계로 큰 훈련이나 부대 심사 때면 "너는 훈련 나오지 말고 그냥 사무실에 숨어 있어. 원래 없는 병사처럼 꽁꽁 잘 숨어라"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격한 업무라면 부대 부지 매입이나 간부용 숙소 매입을 위해 군무원님을 따라 외근을 나가서 '이 아파트는 방이 두 개, 화장실이 하나군. 마룻바닥에 찍힘 자국이 있어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겠어' '이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 가스를 이용해야 함' 이런 걸 메모하는 정도.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4박 5일 외근을 나갔는데 부대에서 운전병과 차량도 배차해주었고 그 운전병은 저랑 친한 생활관 선임이었던 터라 저희는 여행하는 기분으로 평소 다녀보지 못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부대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술도 한잔씩 했습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로에 관광지가 있으면 들러서 구경도 했지요. 그렇게 바람을 쐬고 부대에 복귀하면 한두 달 정도는 답답함 없이 군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사무실에는 히터와 난로가 있었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모두 제설 작업을 나갈 때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눈 구경을 했습니다. 한여름 생활관에서는 선풍기 두 대로 더위를 났지만 제가 일하던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있었고 저는 잠들기 전까지 잔업을 핑계로 사무실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편한 꿀보직으로 22개월을 보내고 생각보다 빨리 부사수를 받게 됐는데 인수인계도 따로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이등병과 둘이 앉아서 딱히 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런 시간이 한 달이나 남아 있었기에 저는 일명 '짱 박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사이버지식정보방에 틀어박혀 음악을 들었고 어떤 날은 책을 읽었습니다. 분대장 생활관에 들어가 종일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말년 병장으로 지내는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시절이 또 있을까? 별 간섭 없이 마음 편하게 자고 쉬고 멍 때릴 수 있는 시간. 그래, 내 인생에서 어쩌면 다신 오지 않을 긴긴 쉼이다! 그러니 더 열심히 짱 박히고 더 열심히 쉬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놀다가 전역한지 어느덧 12년. 저는 군 생활을 생각하면 따듯한 봄날에 외근 갔던 단양의 도담 삼봉의 벚꽃이 떠오르고, 펑펑 내리는 눈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손수 내려 마시던 핸드드립 커피 향이 생각납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모두 힘든 요즘 저도 가게 문 닫고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군 생활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넌 그때 이미 너무 많이 쉬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가게 나가서 장사해도 돼!'라고요.

말년 시절 너무 게으르게 짱 박혀 있었던 게 부끄러워서 전역 후에 한 번도 인사드리지 못했지만 군 시절 일부러 힘든 훈련 다 빠지게 해주시고 휴가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셨던 군무원님께 늦게나마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용의 단·필·충

꼬인 군 생활

임찬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저의 찬란했던 군 생활을 소개합니다. 저는 1995년 9월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4주간 훈련받았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동창과 같은 내무반 바로 옆자리에서 훈련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창은 학교 때부터 체력이 무척 약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얼차려를 많이 받았지요.

"거기, 혼자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올빼미. 뭐야? 또 너야!"

사격훈련, 유격훈련, 화생방훈련. 모든 훈련에서 골고루 엉망이었던 그 친구가 내무반 옆자리 동기 동창이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고 내 맘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군대라더니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골고루 엉망이었던 올빼미! 육군본부로. 그 옆자리 대체로 준수했던 임찬주 올빼미, 너는 논산 모 연대로 간다."

체력이 약했던 친구는 아무나 갈 수 없던 군 생활 편하게 하기로 소문난 육군본부로 배치가 됐고 저는 또다시 2주간 논산 모 연대에서 '무반동총'이라는 어마어마한 화기의 작동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90mm 무반동총을 메고 행군을 해야 하는 연대로 짐을 옮기는데 입에서 절로 '아, 군 생활 꼬였다!'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2주간 논산훈련소 신병훈련을 더 받고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지요. 춘천 102보충대에서 일주일 동안 대기를 하며 일주일간 부대 내의 잡일을 하면서 조금은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 후 소양댐으로 이동한 후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전진. 아직도 소양호에서 바라본 38선이라는 글자가 눈에 선하네요. 배에서 내린 저를 포함한 5명의 신병은 다시 육공트럭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 GOP 사단의 연대본부. 거기서 또 사흘을 대기. 다시 또 육공트럭을 타고 산을 넘었습니다.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민통선 내에 있는 대대급의 부대!

중화기 중대에 배치된 저는 논산에서 GOP까지 오느라 많이 지친 상태였지만 신병이었기에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습니다.

"신병! 임찬주!"

"야, 그냥 편하게 있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선임이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뭐? 내 말이 지

금 틀렸다는 거냐? 엎드려뻗쳐!"

첫날부터 군 생활 완전히 꼬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게다가 무섭게 생긴 그 선임은 무슨 독심술이라도 하는지 그 순간 자기 말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내 군 생활은 꼬였다! 실시!"

"내 군 생활은 꼬였다!"

"소리가 작다. 다시!"

"내 군 생활은 꼬였다!"

웬일로 제 인생의 한 치 앞이 보이더군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 군 생활은 완전히 꼬였다'라고요.

말은 씨가 되어 저는 훈련 중에 선임들한테 맞고 산악 구보를 하면서 탈진하기도 했습니다.

혹한기 훈련에선 A형 텐트를 치고 군화를 품은 채 잠들어야 했지요. 그래도 훈련 중에 선임들이 직접 반합에 끓여줬던 라면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맛으로 남아있습니다.

타 부대와 GOP 교대를 하기 위해 3박 4일간 실전 훈련도 했습니다. 모든 훈련이 다 힘들고 괴로웠지만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이병 생활을 마치고 일병이 되면서 저는 대대 연대본부 인사과로 전출을 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군대에 늦게 간 걸 후회했습니다. 연대본부에서도 고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미 상병 5호봉, 상병 5개월 차였기 때문입니다. 일병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친구에게도 경례를 해야 했고 나이 어린 선임들에게도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이 마냥 꼬이지만은 않더군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힘든 오르막 뒤엔 반드시 편한 내리막이 있는 법. 잡기에 능했던

저는 축구 탁구 등의 운동을 잘했고 표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포상휴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6개월간의 다이내믹했던 군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신병! OOO입니다."

"몇 살이냐?"

"스물여섯입니다."

"어라? 나랑 동갑이네. 친구! 말 편하게 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선임이 말하는데 반기를 드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나이 먹고 군대 온 너도 참 어쩌겠냐. 따라 해. 내 군 생활은 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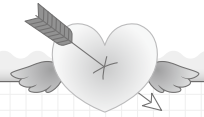
"내 군 생활은 꼬였다!"

"크게 안 하냐? 내 군 생활은 꼬였다!"

"내 군 생활은 꼬였다!"

그렇게 저는 선임들에게 배운 대로 물려받은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꼬이고 꼬였던 군 생활이 그래도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갈 일이 없으니까 그리운 거겠지요.



사랑탐구생활

곰 한 마리

이해경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년째 곰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까맣고 크고 뚱뚱한 곰입니다. 말은 또 얼마나 안 듣는다고요. 집을 나가면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행히도 집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찾아 들어오긴 합니다.

곰과 저는 8살 차이가 납니다. 소개로 만나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양가 어른들이 날을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23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집순이인 저는 퇴근해서 곰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곰은 만나야 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전 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를 속으로 외치며 받지 않는 전화기 버튼만 누르고, 뉴스에서 사고 속보라도 뜰까 봐 전전긍긍하며 지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녀서 한마디 하면, 곰은 말합니다.

"너네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어쩌다 집에 있으면 TV 리모컨만 초 단위로 돌리고 휴대폰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디스크가 오지요. 곰 주제에 거북목이라나 뭐라나.

그래도 집에 있는 곰이 좋아 저는 계속 말을 걸어봅니다. 갖가지 재료를 다 끄집어내서 솜씨를 발휘해 한 상 입이 떡 벌어지게 차려 냅니다. 먹성 좋은 곰은 허겁지겁 먹습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냐고? 여보, 말 좀 해봐."

정신없이 먹기만 하는 곰. 속이 뒤집어집니다. 입은 대체 왜 달고 사는지요?

가끔 저는 말합니다.

"아, 해봐. 입안에 거미줄이 쳐졌는지 보게."

애교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심심하고 무료할 때 서로 눈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가 필요할 뿐인데, 그래서 함께 살자 마음먹고 20년을 버티고 돌봐주었는데, 이만큼 살았는데도 곰 아니 제 남편은 모든 표현이 쑥스럽고 부끄러운가 봅니다. 소리 내어 웃는 것도 20년을 같이 산 마누라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도 맛있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모두 서툰 이 남자. 그래도 심성은 무지 착해요.

둔하고, 크고, 까맣고, 뚱뚱한 이 남자가 최근엔 저의 매서운 눈빛과 무관심에 살기를 느꼈나 봅니다. 회사에 있는데 톡이 왔더라고요.

〈주말에 네가 좋아하는 산에 갈까?〉

읽씹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근 시간쯤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네 정거장을 걸어서 집에 도착하니 먼저 퇴근해서 TV 앞에 있는 곰. 늘 그렇듯 TV를 크게 틀어 놓고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굳이 안방으로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제 눈치만 보며 이번엔 안방 TV를 또 크게 틀어놓습니다. 곰에게 말했습니다.



"나가!"

꿈쩍도 하지 않는 곰.

"안 나갈 거야?"

고개를 끄덕이는 곰에게 못 이기는 척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그냥 자기 눈을 보면서 잠시라도 '대화'라는 걸 좀 하고 싶어."

곰도 많이 미안했나 봅니다. 바로 제 쪽으로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일을 하려나 봅니다. 곰이 조용히 TV를 끄고 제 눈을 바라봅니다. 이마에선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곰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걸 하고 있습니다. 곰의 그 땀 한 방울에 겨우내 언 땅이 녹듯 또 제 마음이 녹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또 봄입니다.

사랑탐구생활

오랜 기다림 끝에

원일재 | 대전광역시 대덕구

1998년 공주대학교 생물학과에 진학하여 그녀를 처음 만났다. 아담한 체구의 그녀가 처음 눈에 띈 건 한창 여름이 시작되던 1학기 말어느 오후였다. 창밖 햇살에 유난히 얼굴이 하얀 그녀가 눈부시게 예뻤다. 보지 않으면 생각났고 그녀의 활동이 궁금했다. 그녀가 참여하는 수업, 동아리, 친구 동창 모임에 모두 참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번 여름방학을 대천 앞바다에서 불태울 사람?"

"대천? 대천이면 조개구이 맛있는 동네잖아!"

"우리 할아버지 댁이 거긴데 이번 여름방학에 집이 빈단다. 앗싸!"

"오예~ 야, 나! 나 꼭 데려가!"

"선배 저도요!"

"어? 그럼 나도 나도!"

낭만이라 불리는 서해에 그녀와 내가 있게 됐다. 나는 그녀에게 수영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의 절친이 있어 내가 다가갈 틈이 없었다.

고백 한 번 못해 본 풋내기의 여름이 맥없이 끝나고, 난 술을 잔뜩 먹었다. 술기운을 빌려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2층 그녀의 방, 불이 켜져 있었다.

"지영아, 지영아~."

고요한 밤, 내가 부르짖은 그녀 이름에 모든 적막이 깨졌고 그녀가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왔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일단 조용히 올라와."

2층 옥탑방, 그녀의 자취방 문이 열리는 순간, 여인의 샴푸 향, 비누 향, 암튼 은은한 향기가 내 콧속으로 밀려들어 왔고, 술기운이 오를 대로 오른 나는 후끈거리는 내 몸에 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나가자."

"훗, 그래."

숨 막히는 어둠 속을 걷다가 조용한 공터에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다.

"나, 너 좋아해."

지금 생각하면 그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술주정도 아니고 달밤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고백이라니.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대답은 엉뚱했다.

"미안, 나는 나이 많은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지금 생각해도 참! 참신한 거절이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도 아니고,

난 너랑 안 사귀어도 아니고,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놈이랑 결혼한다니! 나는 한 번 더 용기를 냈다.

"난 너랑 꼭 결혼할건데 기다릴게."

"야, 진짜 그러지 마. 나는 나보다 10년은 더 나이 많은 남자 출근시키는 게 내 꿈이야."

서로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런저런 의미 없는 말들을 조금 더 나누다 헤어졌고 난 얼마 있다 군대에 갔다. 그리고 병장 말 휴가쯤, 내 주머니에는 한 달 용돈을 모아서 산 반지 하나와 잘 말린 네 잎 클로버가 있었다. 그녀에게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4학년, 취업 준비로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다.

친구를 만나서 그녀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 녀석이 묻더군요.

"야, 너 아직도 못 잊었냐?"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잊어?"

"허! 이놈 진짜네. 그럼 만나자고 당장 전화를 해! 너, 번호는 아냐?"

"당연하지. 여기 전화번호는 항상 갖고 다니는데…."

"오! 진짜? 당장 이리 줘. 내가 걸어줄게."

"야, 신호 간다!"

"여보세요."

"받았어, 받았어."

"여…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지영아! 나야 일재. 너, 뭐하냐? 우리 대공원 안 갈래?"

평일이었다. 대공원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나는 반지와 네 잎 클로버를 건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내 주머니의 그것들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무렵, "나 잠깐 화장실 좀. 저기 식물관 앞에서 기다릴래?"

찬스였다. 난 식물관 바로 앞 잔디밭에 네 잎 클로버를 떨어뜨려 놓았다가 그녀가 돌아왔을 때 우연히 주운 듯 쿨하게 건넸다.

"네 잎 클로버야. 너 가져!"

지금 생각하면 아, 진짜 멍청한 놈! 원래 준비한 멘트는 이거였다.

"행운의 상징 네 잎 클로버야. 지갑에 넣고 다니면 행운이 온대. 그 행운이 널 지켜줄 거야. 나 대신 항상 데리고 다녀."

이거였는데!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망연자실한 나를 그녀가 3초가량 멍하니 보더니 씩 웃으며 돌아섰다. 그리곤 도로 잔디밭으로 다가가 네 잎 클로버를 땅에 놓아두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남의 행운을 가로챌 순 없지!" 난 당황했고, 바로 다시 주워서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온종일 시골 배나무밭을 헤매고, 일주일을 아랫목에서 잘 말려서 코팅까지 한 내 마음! 내 마음 그 자체라고!"

그녀는 대체 왜 이딴 걸 만들었냐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고 어이없어하는 그녀에게 난 차마 반지까지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당분간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졸업 후 취직했다 그만두었다 다시 취직했다고 했다. 모두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다. 나는 구멍 난 학점을 때우느라 바빴는데, 어느 날 내 전화기에 그녀의 이름이 깜박였다. 벨 소리가 한 번 두 번 울리는 동안 난 그녀의 이름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먼저 전화를 하다니!

"여보세요?"

"일재야, 내가 학교 실험실에 화구통을 놓고 왔는데 네가 서울에 올라올 일 있음 좀 가져다줄 수 있어?"

"어, 그럴게! 마침 이번 주에 나 서울 가는데. 이야~ 너 운이 하늘을 찌른다. 내가 너희 회사, 영등포 쪽으로 가지고 갈게."

난 반지부터 챙겼다.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그런데 그녀를 보는 순간, 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름답고 세련된 직장인의 모습이었는데 나는 주머니에 고작 2만 원뿐인 싸구려 셔츠 차림의 지방대 복학생이었다.

"진짜 고마워. 우리 밥 먹을래?"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고 내 주머니 속 2만 원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미안해. 나 정말 일이 있어서 서울 왔어. 오늘은 그만 가 볼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왜 난 눈물이 났을까? 다시는 그녀를 못 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을까? 그 후로 나는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끝내고 취직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보고 싶어 그녀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서울 불광동에 자리를 잡았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 고백하고 또 한 번 거절당했다.

그 후 또래 여인과 연애가 불가한 섬으로 직장을 옮겼고 이십 대 후반까지 모태 솔로로 늙어가던 나에게 이번에도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

"야! 지영이 아직 혼자래. 너, 아직 기회 있어."

그렇게 마련된 세 번째 만남.

"우리… 사귈래?"

"야, 너 또 시작이야? 싫다니까."

"기다릴게.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말아줘."

"뭘 또 기다려? 대체 얼마나 더 기다릴 건데?"

"나 기다리는 거 잘해.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잖아."

그녀가 웃는 얼굴로 이번엔 대답 대신 내 팔짱을 끼었다. 난 복수하듯 그녀의 팔을 살짝 빼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황당! 황당! 황당!' 그녀의 이마에 '황당'이라고 쓰여 있었다. 난 웃는 얼굴로 뿌리친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웃옷 주머니에 넣으며 신이 나서 외쳤다.

"이제 우리 1일이다!"

그렇게 우린 연애했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함께 40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많이 아프다.

2022년 1월 13일 오후 5시 30분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악성 림프종이래. 나 암이래."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괜찮아. 괜찮아 지영아.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왜! 왜! 2년 전부터 여러 신호를 보내온 그녀를 나는 게으르다고 핀잔 주고 서운하게 몰아붙였다. 나는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원망스럽다. 그간의 잘못을 뉘우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길 빈다.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게 와 준 그녀에게 보답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그리고 우리 지영이는 잘 넘길 것이다! 우리에겐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고 서로가 있고 지금의 행복이 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최선을 다해 그녀를 지킬 것이다. 약속한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한다! 내 아내!"

주말엔 투유

친구 같은 형님께

하필혜 | 부산광역시 동래구

형님! 흐르는 세월이 정말 바람같이 지나갔네요. 형님의 세월도 별반 다를 게 없겠지만 그래도 형님은 저보다 유순해서 세월마저 더디게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님 내외분이 유달리 마음씨가 고와 부러워서 그리 느낀지도 모르겠네요.

형님, 고백하건대 전 살면서 머물고 싶은 순간보다 바람결에 지나갔으면 하고 세월에 부채질한 순간이 훨씬 많았어요. 형님도 눈치채셨겠지만 남편은 솔직히 제 이상형은 아니었거든요. 멋진 건축 설계도 그리듯 내 이상에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가 물론 힘들겠지요. 지극히 방자한 생각이지만 제가 이상형도 아닌 무엇 하나 잘 맞지도 않는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형님의 책임도 몇 퍼센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의 소개로 우리가 만나게 된 거니까요. 옛말에

세 가지 이상을 속이지 않으면 중매는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아마 다섯 가지도 넘을 거예요. 솔직히 형님께 속았다는 생각에 늘 억울했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서울에 집을 사두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당연히 나의 몫이라고 단정 지었고요. 시댁이 농사를 짓고 계시니 당연히 쌀이며 양식들을 나눠 주실 거라는 기대도 했어요. 남편이 기술도 있으니 늘 꿈꿔왔던 나만의 인테리어 가게를 차려 줄 거라는 형님의 지레짐작도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네요.

결국 남편과 처음 만난 지 49일째에 남편의 얼굴을 본 지 꼭 열 번째 되는 날에 결혼식을 올렸네요. 열 번의 만남은 모두 형식적인 만남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함께 맞선 보기로 한 날, 시부모님께서 집안에 일이 생겨 맞선 장소에 남편 혼자 나왔지요. 전화가 귀하던 시절이라 미루지도 못하고 혼자서 맞선 장소에 나온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의 바르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신랑 신부 예복을 맞추고, 결혼식 준비를 함께하던 아홉 번의 만남 중에 남편과 영화를 보던 날도 생각나요. 배우 임예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진짜 진짜 좋아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도 약혼까지 한 사이인데 영화 보는 동안 어깨에 손을 얹는 건 고사하고 손목 한 번 잡지 않더라고요. 길을 걸을 때도 저만치 앞서가는 남편에게 내 이상형인 점잖은 사람이니까, 마냥 좋다고 느낀 걸 보면 저도 콩깍지가 끼긴 했었나 봐요.

분명 제 선택인데 결혼생활이 팍팍하다고 생각되면 중매쟁이 형님을 원망하며 탓했네요. 남편에게 정을 주지 못하고 마음을 자주 허공에 띄워 놓곤 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쪼르르 달려가는 곳이 형님댁이었어요. 시댁에서 신혼살림 할 때 결혼생활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진 제 표정을 꼼꼼히 살핀 형님께서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무던히 애쓰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남편에 대한 중심축이 제 가슴속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형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때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분은 바로 형님이겠구나 싶었지요. 그런 이유로 시누이와 올케 사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툭하면 속상한 속내를 형님에게 쏟아내곤 했네요. 그 버릇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워낙 그릇이 큰 형님은 언제나 올케인 제 편에 서 주셨어요. 감사해요.

참 형님을 당황스럽게 한 적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형님은 단 한번도 '올케가 잘못했네'라던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남편 잘못이 아니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허물을 들춰낼 만도 한데 늘 제 편이 돼 주셨지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때마다 형님은 늘 저의 버팀목이셨습니다. 남편과 아직도 부대끼며 사는 이유는 늘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형님의 그늘막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하지요. 제가 형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는 친구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제 삶은 나름 성공한 삶이라고 우기렵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 형님을 뵐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형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이라도 건강 잘 지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처음이자 마지막인 손편지로 그 옛날 일들 회상하며 제 마음 전해봅니다. 형님, 오래오래 제 생의 길동무가 되어 주셔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올케가 -

주말엔 투유

딸기야에게

김경순 | 충남 계룡시 엄사면

딸기야! 네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에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고, 먹을 것이 돼주기도 하는 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구나.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너와 늘 함께했네.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뒤뜰에 너를 심어 놓곤 하셨는데 무럭무럭 자라 열매 끝부분이 조금이라도 붉어지면 내가 얼른 따먹곤 했어. 우리 집 뒤뜰에 쉬지 않고 심긴 너는 자라는 내내 나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지.

그러다 내가 결혼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너를 재배하기 시작했잖아. 처음에는 딸기 농사에 대한 지식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정말 고되고 힘들었어. 왜 사람들이 일 많이 하고 싶으면 딸기 농사지으라고 하는지 알겠더라. 농사 초기에 수입은 별로 없고 일만 많아서 결국 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다른 작물로 농사를 새로 지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널 향한 애착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내 나이 오십이 넘어갈 때쯤 농사 기술의 발전으로 이젠 '고설 재배'라는 게 생기더구나.

그때부터 다시 용기를 내 딸기 농사를 지었지.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었어.

물 조절, 온도·습도 조절 등을 컴퓨터로 하니까 컴맹인 나에겐 수학 문제처럼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쑥쑥 자라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널 다룬들 재해까지 막을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로 변화무쌍한 날씨, 그 날씨로 인한 각종 병해충까지 생기면서 건강히 자란 너를 만나는 건 참 힘든 일이 됐지.

그래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결과를 낳는 게 농사라고 생각해.

내 나이 칠십에 그저 정직하게 일궜을 뿐인데 안정적인 소득을 줘서 정말 고맙다. 칠십이 넘은 나이에도 일할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

관리하기는 좀 까다로워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새콤달콤한 맛을 가진 딸기, 네가 참 좋아.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어느새 입 안에 침이 고이는 구나.

앞으로도 지금껏 그래왔듯 널 향한 일방통행만 묵묵히 하다 보면 너는 또 나에게 보답을 주리라 생각한다. 올해도 한번 잘 키워볼게! 고마워 딸기야.

일상의 풍경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동네 산책을 할 수 있는 건 노견 미미 덕분이다. 내가 집에 오기 무섭게 뱅글뱅글 돌며 현관 앞에서 나가자고 채근한다. 도대체 만 15살 넘은 개가 어쩜 저렇게 활달할까? 발걸음도 재고 신이 나서 "엄마랑 함께하는 산책이 최고~"라고 동네에 자랑하며 걷는 듯하다. 집집마다 담장 밖으로 라일락, 철쭉, 싸리꽃, 복숭아꽃, 앵두꽃이 흐드러져 있다.

나는 한 달에 두 번 거의 비슷한 분량의 원고를 쓴다. 하나는 〈여성시대〉, 또 다른 하나는 〈한겨레〉 신문에 월 1회 연재하는 '양희은의 어떤 날'이다. 제일 골에 지진이 나는 때는 두 건의 원고 마감일이 겹칠 때이다. 200자 원고지 11매 정도를 쓰기 위해서 뭐 없나 하고 생각을 모으려 해도 마감일이 하루 정도 남았을 때라야 글이 써지기 시작하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집에 머물기만 하니 신통방통한 얘깃거리도 없고 해서 여기저기 내 기분에 맞는 곳을 기웃거린다. 북유럽의 여러 생활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곳에서는 간단명료한 쓰임새의 아름다운 색색 가지 그릇들과 가구, 조명 등을 감상하면서 사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며 또 다른 나와 싸우기도 했다.

무언가 영감이 필요할 때는 영화만한 게 없어 30석짜리 파주 헤이리 시네마로 간다. 어떤 아침엔 우리 부부가 아담한 그 극장을 통째로

전세 내고 본다. 주로 독립영화를 많이 상영하지만 장안의 화제작도 볼 수 있으니 집에서 25분 달려가는 자유로 드라이브는 덤이다.

수영장에도 확진된 이들이 있어 한 열흘간 못 보다가 아주 반가운 인사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 한 분 얘기가 확진이 아니고 부부가 놀러 갔다가 넘어지려는 자기를 붙잡느라 남편은 허리를 삐끗하고 자기는 다리를 다쳐서 쉬었단다.

"아유, 여기나 와야 사람 사는 것 같아. 아니면 아주 우울해. 그냥 가라앉고 TV만 보면서 꼼짝도 하기 싫더라고!"

나이대가 비슷하니 서로 진심으로 안부를 챙긴다.

4월엔 여기저기 병원 순례를 했다. 연골이 찢어진 나의 왼쪽 무릎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했으니 연골주사도 맞을 수 없고, 수술만이 답이란다. 1주일 간격으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빠르면 3주, 여유롭게 하면 4주가 걸리는데 재활까지 끝내려면 적어도 3달이 걸린단다. 인공관절 수술 이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수술한 무릎 꺾기와 재활인데,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의사는 권했다.

이런저런 고민을 수영장 엄마들에게 털어놓으니 다들 자기의 예전 무릎 상태를 얘기하며 절대 수술 반대란다. 사람 구실도 못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수영장서 살살 걷다가 킥보드 잡고 물장구치기만 2년 한 후, 별별 운동 다 하며 사람같이 산다면서 뭐 하러 수영 끝나면 그렇게 도망치듯 가냐고, 20분이라도 일찍 와서 걷든가 아니면 끝나고 2~30분 남아서 걷든지 런지를 하라며 돌아가며 야단이다. 하도 열심히들 물속 운동을 권해서, 당분간 그 경험 있는 엄마 동지들 말에 기대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사 하나하나가 〈여성시대〉를 닮은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지난 2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때문에 마음 놓고 드라마를 즐기지 못했다. 자연스레 드라마와 조금 멀어져 가는 듯했는데, 최근 다시 나를 드라마의 세계로 끌어들인 작품이 있다. 바로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를 꼽으라면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란다. 그중, 시종일관 나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인 이유였던 명대사들을 정리해봄으로써 작품의 감동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작품을 차분히 보실 분들을 위해 최대한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상황 설명과 대사 위주로만 얘기하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 처음이 오늘이니까 오늘까지만 서툴겠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져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백이진(남자 주인공), 첫날부터 늦어서 고객이 화를 내자 사과하며 건넨 말.

"대신 저도 절대 행복하지 않을게요. 아저씨들의 고통…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말 어떤 순간에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닦달하자 백이진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

"어떻게 행복까지 포기해? 근데 너는 이미 그 아저씨들한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앞으로 나랑 놀 때만, 그 아저씨들 몰래 행복해지는 거야. 둘이 있을 땐, 아무도 몰래 잠깐만 행복하자.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힘들어하는 백이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는 나희도(여자 주인공)의 말.

"니 자신을 못 믿겠으면 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나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큰 경기를 앞두고 자신 없어 하는 나희도에게 펜싱부 코치 양찬미가 한 말.

"노력 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노력도 안 해놓고 잘하길 바라는 게 더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지 않냐는 고유림(여자 주인공2)의 질문에 전교 꼴등 문지웅(남자 주인공2)이 한 대답.

"꿈대로 살지 않는다고 실패한 인생도 아닌 것 같고, 꿈꾸는 대로 산다고 성공한 인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게 현재 제 꿈입니다."

꿈이 뭐냐는 선배의 질문에 대한 백이진의 대답.

(지웅): "네 유일한 약점은 나를 친구로 뒀다는 거야. 넌 완벽한 앤데, 늘 나 때문에 일에 휘말려. 그게 너무 화가 나."

(승완): “웃기고 있네. 난 일에 휘말리려고 너랑 친구 하는 거야. 너 아니었음 진작 세상 떴어, 재미없어서. 난 계속 재밌을 거야, 너랑 같이.”

폭력 교사에게 시달리는 문지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경찰에 교사를 신고했다가 자퇴해야 할 상황에 처한 지승완(여자 주인공3), 어릴 적부터 절친인 둘의 대화.

“저는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관심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전 이제 딱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입 모양) 고유림. 좋아해. 우리 사귀자.”

문지웅이 교내 밴드공연 무대에서 고유림에게 깜짝 고백하는 장면.

청취자 여러분, 제가 처음 여성시대와 함께할 때가 기억나네요. 대한민국 최고 프로그램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7년여가 지난 요즘, 제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진행자가 될 수 있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